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무용예술

- 일 시 : 2019년 5월 25일(토) 오전 10시
- 장 소 : 중앙대학교 102관 11층 유니버시티 클럽
- 주 최 : 한국무용예술학회
- 후 원 : 중앙대학교, 한국연구재단

한 국 무 용 예 술 학 회
THE KOREAN SOCIETY FOR DANCE STUDIES

NRF 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이 발표논문집은 2019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한국무용예술학회 제24차 학술발표회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무용예술

일 정 표

09:30-10:00 **등 록**

10:00-10:10 **개 회 사** 회장 조은숙 중앙대 교수

학술상 · 우수논문상 · 공로상 시상
사회 김나영 서울여대 교수

10:10-11:30 **논문발표**

Ⅰ. **문화다양성 개념 활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박윤경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Ⅱ. Honoring Cultural Diversity in Dance Education
Susan R. Koff New York University 교수

Ⅲ. **초등학교 표현활동의 문화다양성 교육**
–2015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와 지도서를 중심으로–
유미희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Ⅳ. **다양성을 실현하는 문화생태계와 무용**
–정책 및 간학제적 관점–
김지영 상명대학교 교수

11:30-12:20 **질의 및 종합토론** 좌장 서예원 청주교대 교수
질의 오문자 원광대 교수
이정연 서울교대 교수
박영하 서울기독대 교수
정옥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09:30-13:00 **연구포스터발표**

목 차

■ 논문발표

I. 문화다양성 개념 활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박 윤 경 / 3

II. Honoring Cultural Diversity in Dance Education
…… Susan R. Koff / 13

III. 초등학교 표현활동의 문화다양성 교육
–2015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와 지도서를 중심으로– …… 유 미 희 / 23

IV. 다양성을 실현하는 문화생태계와 무용
–정책 및 간학제적 관점– …… 김 지 영 / 49

■ 연구 포스터 발표

Practice-based Dance Research:
– Space Harmony를 적용한 안무노트「Ping Pong」– …… 김 수 혜 / 77

무용경영(Dance Management)의 전문적 정체성 형성과정 탐색
– 다중근거이론 접근(Multi-Grounded Theory Approach) –
…… 김은혜, 이지영, 이현주, 김지영 / 78

음양사상의 순환성을 기반으로 한 무용창작작품
「생생지도(生生之道)」에 관한 연구 …… 남 선 희 / 79

무용전공자의 집단 따돌림 현상 극복사례 분석 …… 박 문 성 / 80

필라테스 운동이 무용수의 허리 통증 자각에 미치는 영향 …… 이 소 라 / 81

무용교육학 연구동향 및 지식구조
– 텍스트마이닝 및 의미연결망 분석 –
…… 이지영, 박제인, 최진웅, 김지영 / 82

치매노인을 위한 무용교육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 윤정옥, 박정주, 황 현, 김지영 / 83

유아의 댄스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LMA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 정 재 임 / 84

사회초년생을 위한 커뮤니티(Community)댄스로서의
즉흥무용 프로그램 개발
– 루트번스타인의 13가지 생각도구를 중심으로 – …… 정 현 미 / 85

재능의 위계화, 혹은 경쟁의 서사화
–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Défilé du Ballet〉와 서바이벌 오디션 〈픽미 업〉의
안무의 구조에 드러나는 의미 분석– …… 제 환 정 / 86

공간을 활용한 Site-Specific 무용의 활성화 방안 연구
…… 홍 정 아 / 87



논문발표 I

문화다양성 개념 활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박 윤 경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문화다양성 개념 활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박 윤 경*

Ⅰ. 서 론
Ⅱ. 문화다양성 개념의 특징과 가치 지향성
Ⅲ. 문화다양성 개념 활용의 가능성과 한계
Ⅳ. 결 론
참고문헌

Ⅰ. 서 론

지난 십여 년 동안 진행되어 온 국내 다문화 관련 논의는 뚜렷한 쟁점 없이 '필요로부터 대책으로' 직진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 주목할 만한 현상 중 하나는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정책적, 또는 학문적 관심의 증가는 단일문화적(mono-cultural)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한국 사회의 질적 전환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그동안 한국 사회의 단일문화 프레임은 일정 부분 사회 발전의 추동력으로 작동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에 내재한 권력적 속성을 간과하고, 개인적 삶의 자유로운 대안 탐색과 한국 사회 전체의 문화적 가능성 확장을 가로막는 기제로 작용했음도 부인할 수 없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크게 보아 두 개의 상이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다. 하나는 문화다양성 협약이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

*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realpyk1@cje.ac.kr

것이며, 다른 하나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새롭게 제기된 교육적 요구에 대응하고자 한 것이다. 출발점은 다르지만 모두 국가 정책적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단기간에 학문적 외형을 확장했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전개 양상을 보여준다.

문화다양성 논의의 확장적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흥미로운 점은 두 흐름이 인간 사회의 문화, 또는 문화다양성을 바라보는 전제를 일정 정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 현장에서는 서로 경쟁하거나 상충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또한, 문화다양성을 우리 사회가 수용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로 전제하고, 이를 현실 진단은 물론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표 개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것에 비해, 문화다양성 개념 활용상의 유의점이나 난점에 대해 논의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는 점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다문화교육 논의의 맥락에서 문화다양성 개념이 갖는 특징을 설명하고, 문화다양성 개념 활용상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문화다양성 연구 및 실천에서 유의할 점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II. 문화다양성 개념의 특징과 가치지향성

1. 문화다양성 개념의 특징

문화다양성은 인간 사회의 존재론적 속성을 보여주는 개념이자,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당위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문화다양성 개념은 다음과 같은 전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인간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 특질을 넘어서 자신이 속한 집단이 공유하는 신념, 사고, 가치체계의 영향을 받는 문화적 존재이다.
둘째, 인간 사회에는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
셋째, 인간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들은 각각의 자연환경이나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나름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며, 문화 간 우열을 정할 수 없다.
넷째, 문화다양성은 인간 사회를 더 풍부하게 한다는 점에서 각각의 문화는 유지, 보호되어야 한다.

다섯째, 문화다양성 관점은 다양한 문화 간 상호이해와 공존을 추구한다.

이상은 1장에서 언급한 국제사회적 요구로서의 문화다양성 개념과 다문화사회의 핵심 가치이자 목표로 강조되는 문화다양성 개념이 공유하는 특징들이다. 다문화교육에서는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한 사회 내부의 문화다양성에 내재된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 주목한다.

여섯째, 문화다양성은 지구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한 사회 내부에서도 나타난다.
일곱째, 한 사회의 전체 문화는 성, 인종·종족, 연령, 계층, 종교, 지역, 언어, 장애, 성애 등에 따른 다양한 하위문화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덟째, 동일 범주의 하위문화에는 주류 문화와 소수 문화가 있다.
아홉째, 주류 문화는 한 사회의 문화적 표준으로 작동하며, 소수 문화 집단 구성원은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된다.
열 번째, 소수 문화, 또는 그 집단 구성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은 개선해야 할 사회 문제이다.

2. 문화다양성 개념의 가치지향성

문화다양성 개념에 대한 논의와 연관하여 다음과 같이 다문화교육의 다양한 목표들이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목표들에는 문화다양성이 지향하는 가치들이 내포되어 있다.

첫째, 다문화교육에서는 한 사회 내부에 문화다양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며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둘째, 다문화교육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이 속한 문화 집단 및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다문화교육은 문화 공존을 위해 문화 간 상호 이해를 추구하며, 다른 문화 집단 구성원을 존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넷째, 다문화교육은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문화 집단 간 형평성을 추구하며, 소수 문화 집단 구성원의 불평등한 지위 개선과 권한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다섯째, 다문화교육은 문화 간 권력 관계를 분석하는 구조적, 비판적 관점과 사회 변화를 위한 개선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이상의 목표들은 일거에 도출된 것이라기보다는 학문적 논쟁과 사회적 투쟁의 과정을 거쳐 우선순위를 다투며 출현해 온 것이다. 이에 각각이 현실 분석과 개선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특정 목표가 선별적으로 강조될 경우 상충될 수 있다.

III. 문화다양성 개념 활용의 가능성과 한계

2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문화다양성 개념은 다양성의 인정, 자기 긍정, 타자 존중, 상호 이해와 공존, 문화(집단) 간 형평성의 추구 등의 다양한 가치지향성을 담고 있다. 문화다양성 개념은 한국 사회가 그동안 논외로 여겨왔던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문화다양성 개념을 피상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따른 위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은 접근이 요구된다.

1. 문화다양성 개념 활용의 가능성

가. 인간 사회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 확장

문화다양성 개념은 한 사회의 다양성을 바라보는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는데 기여한다. 젠더, 인종·종족, 계층, 연령, 지역, 종교, 성애 등 문화다양성의 다양한 하위 범주들은 단일문화, 또는 사회 구성원의 동질성 신화에 가려져 있던 사회 공동체의 내적 복합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문화적 관점 제공

문화다양성 개념은 사회 구성원이 경험하는 개인 또는 집단 간 갈등이나 충돌을 문화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해하는 대안적 시각을 제공한다. 이는 기존에 개인 간 갈등으로 간주했던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동일한 현상에 대한 문화적 재해석을 통해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가능성을 열어 준다.

다. 차이와 다름에 대한 수평적 관점 취득

문화다양성 개념은 개인 또는 집단 간 차이가 서로 다른 맥락 속에서 형성된 독특한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관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개인 또는 집단 간 차이를 옳고 그름의 양자택일적 관점이나 우열의 관점이 아니라 서로 다름이라는 수평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라. 표준과 정상성에 대한 비판적 관점 제공

문화다양성 개념은 주류 문화가 한 사회의 표준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기준으로 개인의 사고, 행동 및 삶의 양식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사고의 정당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소수자성 자체를 문제 삼거나, 소수 집단이 일으키는 문제로 간주했던 현상들에 대한 사회적 판단을 유예하고, 문제의 원인 분석과 해법에 대한 전복적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마. 선택 가능한 삶의 목록 확대

문화다양성 개념은 개인과 집단이 삶의 양식으로 채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들을 제공함으로써 한 사회 구성원이 기대하거나 향유할 수 있는 삶의 기회와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다.

2. 문화다양성 개념 활용상의 난점

가. 타문화에 대한 도식적 접근

문화는 지속성을 갖는 동시에 변동성을 갖는다. 특히 오늘날은 미디어의 발달로 문화 집단 내부의 다이내믹스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으며, 상이한 문화 요소들이 동시에 혼재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실천 현장에서 문화다양성 개념을 활용할 때, 몇 가지 대표적인 문화 요소를 선별하여 타 집단의 문화에 도식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타 문화와 그 집단 구성원이 갖는 특징을 단순화하고 사전적으로 규정 짓는다는 점에서 발견과 이해의 과정을

통한 타자와의 관계맺음을 오히려 방해할 위험이 있다.

나. 문화 개념의 권력적 속성 도외시

최근 문화다양성을 환영하는 다수의 행사들에서 문화다양성은 이른바 다양한 사람이나 색깔들이 공존하는 모습으로 이미지화되고 있다. 그런데 문화다양성 개념이 다양한 문화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이상적 이미지로만 재현될 경우, 문화다양성의 캐치프레이즈 아래 소수 집단이 겪는 차별과 불평등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비주류 집단 구성원의 침묵과 희생에 기반 한 표피적 문화 공존은 진정한 문제 인식과 해결을 지연함으로써 얻어지는 잠적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위험을 내포한다.

다. 개인과 문화의 충돌 가능성의 문제

특정 문화 집단에 속한 개인은 그 집단 문화의 영향을 받지만 문화에 종속된 존재는 아니다. 문화와 개인 사이에 긴장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문화가 변화되기도 한다. 그런데 문화다양성 개념을 활용할 때, 개인이 속한 집단의 문화와 개인 사이의 긴장과 충돌 가능성을 간과하고 문화와 그 구성원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주류 집단 구성원들은 각자 다른 개별화된 특징을 갖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에 비해, 소수 집단 구성원들은 그 집단 문화를 대변하는 동질적인 특성을 갖는 존재로 인식된다. 타문화에 대한 도식적 접근과 문화 집단과 개인을 동일시하는 접근이 결합될 경우, 문화적 접근이 인간 및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기보다는 오히려 타자 이해라는 명분 아래 타 집단 구성원에게 제한된 문화적 이미지라는 굴레를 덧씌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렇게 획일화된 타자의 시선 속에서 소수 집단 구성원들의 개인 정체성은 특정 집단 문화의 틀 안에 잠식될 수 있다. 또한 문화와 개인 사이의 긴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라. 개인의 복합적 정체성의 간과

인간은 자신이 속한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고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 현대 사회의 개인은 다양한 집단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각 집단이 개인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은 개인마다 다를 뿐 아니라, 개인의 생애 과정에서 계속 변화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문화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마다 다른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개인 정체성의 다차원성은 서로 다른 행동 기준을 제시하는 문화들을 비교하며 문화를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화다양성 개념을 활용할 때, 개인보다 문화를 앞세워 문화를 통해 개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접근이 우세하다. 이때 문화는 개인의 복합적 특성을 이해하는 하나의 통로가 아니라 유일한 통로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개인의 정체성을 특정 문화의 틀로만 설명하고자 하는 환원론적 접근 방식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IV. 결 론

이 글은 우리가 문화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기 위한 것이다. 문화다양성은 인간 삶의 다양한 양상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유효하다. 하지만 문화다양성 개념에 내포된 다양한 함의를 도외시하고 매우 협소한 방식으로 이 개념을 활용할 경우, 오히려 의도치 않은 유해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문화다양성 개념은 변혁적 개념(transformative concept)으로, 한 사회의 다양성과 그 안에 내재된 권력 문제를 직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문화다양성 개념은 해방적 개념(emancipatory concept)으로, 문화(집단)와 개인 사이의 다차원적 관계를 인식하고 표준과 정상성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개인 삶의 자유로운 대안 탐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평등하게 자유로운 개인들의 삶과 한국 사회 전체의 문화적 가능성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문화다양성 연구와 실천이 더 많은 평등한 자유의 확대를 위해 기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역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구정화, 박윤경, 설규주(2018).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서울: 정민사.

Park, Y. K. (2019). Courage and Wisdom in Handling in Political Speech. In M. Levinson & J. Fay (Eds.). *Democratic Discord in Schools: Cases and Commentaries in Educational Ethics*(pp.27-30). Cambridge, MA: Harvard Education Press.

류상희, 이은주, 박윤경(2016).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아인식,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 조사. 『교육문화연구』, 22(5): 355-379.

박윤경(2005). 초등사회과 '가족' 단원에 대한 내용 분석: 가족 다양성의 관점에서. 『시민교육연구』, 37(3): 51-84.

박윤경(2007a). 다문화 접촉 경험의 교육적 의미 이해: 초등 예비 교사들의 문화 다양성 관련 변화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39(3): 147-183.

박윤경(2007b). 지식 구성과 다문화 문식성 교육. 『독서연구』, 18: 97-126.

박윤경, 류상희, 이은주(2015). 지역 사회의 문화다양성 및 외국이주민에 대한 태도: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9(3): 24-43.

박윤경, 성경희, 조영달(2008). 초·중등 교사의 문화다양성과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태도. 『시민교육연구』, 40(3): 1-28.

박윤경, 이소연(2009).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 : 집단 간 차이와 집단 내 다양성. 『시민교육연구』, 41(1): 41-71.

Cho, Y. D. & Park, Y. K. (2016). "Textbook as a Contradictory Melting Pot": an Analysis of Multicultural Content in Korean Textbooks, *Asia Pacific Journal of Education*, Vol.36, No.1, 111-130. Published online: 19 Aug 2014. DOI: 10.1080/02188791.2014.9243 88.



논문발표 II

Honoring Cultural Diversity in Dance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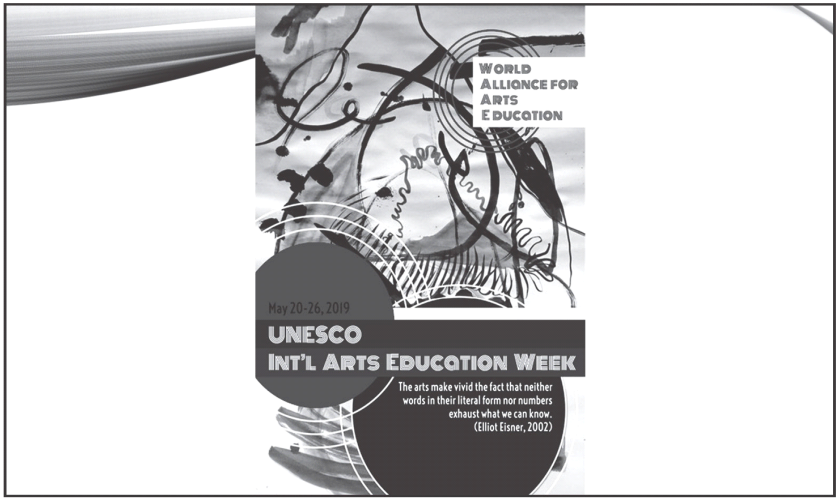
Susan R. Koff

(New York University 교수)

HONORING CULTURAL DIVERSITY IN DANCE EDUCATION

Susan R. Koff, Ed.D., NYU School of Culture,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Presented May 25, 2019, DANCE AND CULTURAL DIVERSITY, Korean Society of Dance Studies, Chung-Ang University, Seoul



DANCE AS NON VERBAL EXPRESSION

- Not universal; rather carries unique cultural values and difference.
- Pedagogy becomes a meeting point through which to value difference.
- Pedagogy communicates:
  - Emotional
  - Physical
  - Social
  - Cognitive
  - And rational learning processes.

  Each with own meanings

DANCE EDUCATION

- Named when dance entered formal education
- Began with western values in formal education.
- Dance education in all forms has existed for much longer.



WHAT IS DANCE? WHAT DEFINES DANCE AS AN ART FORM?

- Can only be defined within specific context.
- "Dancing is moving, but not all moving is dancing" (Gill, 2012, p. 11)
- Dance is "a rich and interesting expressive form through which to view cultural perceptions about the human body" (Dils & Albright, 2013, p. xvii).
- "It is sufficient to say that whatever is labelled 'dance', and accepted as such by those who do it and watch it, is regarded as 'dance'" (Adshead, 1981, p. 4).

HOW DO WE TALK ABOUT DANCE?

- Talking about the whole person and not the Cartesian mind/body split (Damasio, 1994)
- Movement is primary to the being (Sheets-Johnstone, 2011), but all movement is not dance.
- Talking about dance becomes complex and resides in different disciplines such as philosophy, history, anthropology and psychology.

HOW IS DANCE MADE, AND FOR WHAT PURPOSE? HOW IS DANCE PERFORMED, AND FOR WHAT PURPOSE?

- Religion
- Life cycles: medicine, fertility, initiation, marriage, and funeral
- War and peace
- Seduction and play
- Perpetuation of social custom, status and relationships.
- It can be politics and subversion.
- It can also be about expression, entertainment and socialization.
- Manner it is made: spontaneous, created, established.

HOW DO DANCE WORKS CONVEY MEANINGS, MESSAGES, OR FEELINGS? HOW DO SOCIAL CONTEXTS SHAPE THE MAKING AND INTERPRETATION OF DANCE?

- From a perspective of bodily becoming, then, dancing is not only the medium in which human culture persists, it is also the means by which given shapes of culture appear. Culture— its tools, roles, and modes of communication— are what humans create as they mobilize the sensory awareness of themselves as movement that the practice of ritual dancing brings to life. Dancing exercises the capacity that is required to use any tool, word, or power in a human manner. (Lamothe, 2015, p. 183)

HOW IS DANCED PASSED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HOW DOES IT CHANGE?

- Contextually specific
- When context is not the dance form's real context, then contextual information needs to be included.
- Formal
- Non-formal
- Informal education



CULTURALLY RESPONSIVE PEDAGOGY

- Non-European pedagogy: Imitation
- Contextualizing is important
- Naming: nothing is value or culturally neutral.
- Teaching: not only about movement but about the entire cultural perspective of both the *movement* and the *mover*

VALUING DIFFERENCE THROUGH D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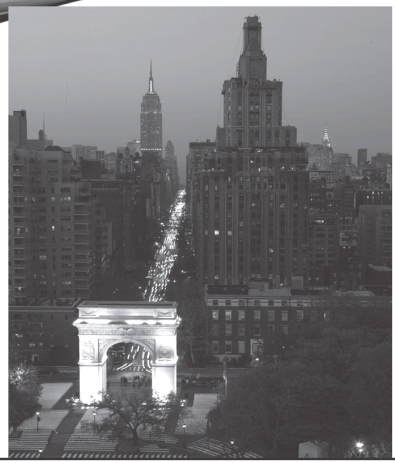
- Look to educational theories not concerning a specific subject.
- Theories of Jerome Bruner, educational psychologist.

BRUNER

- Evolution led to us, as humans, "to utilize the tools of culture" (1996, p. 3) meaning that "learning and thinking are always *situated* in a cultural setting…" (1996, p. 4).
- Our intersubjectivity allows us, as humans, to negotiate between cultures, but "our Western pedagogical tradition hardly does justice to the importance of intersubjectivity in transmitting culture" (p. 20).
- Western framed pedagogy tends to ignore culture.

DANCE HONORING CULTURAL DIVERSITY

- Engage in context specific and culturally responsive pedagogy
- Remove
  - Hierarchies
  - Colonialism
  - Appropriation
  - simple lack of awareness
- Emphasize the education and learning process as the location of how we define ourselves as humans willing to thoughtfully engage with the world.





논문발표 III

초등학교 표현활동의 문화다양성 교육

–2015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와 지도서를 중심으로–

유 미 희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초등학교 표현활동의 문화다양성 교육

-2015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와 지도서를 중심으로-

유 미 희 *

Ⅰ. 서론
Ⅱ. 문화다양성 교육의 이해
Ⅲ.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과 문화다양성
Ⅳ. 표현활동의 문화다양성 교육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Ⅰ. 서 론

한국이 문화다양성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2010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협약"의 110번째 비준국이 되면서부터이다. 2014년에 제정, 시행된 "문화다양성법'은 이러한 협약을 기반으로 하여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국민 개개인의 삶의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2017년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외국인주민은 176만 명을 넘어, 총 인구대비 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계중국인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 순으로 중국, 베트남, 남부아시아(인도권), 태국, 필리핀, 미국, 중앙아시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몽골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주민 자녀가 11.5%에 달하는 등 다인종, 다민족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어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정책은 필수 불가결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문화다양성이란 다양한 민족이 함께 어우러져 평화로운 상생과 공존을 추구

*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terpsi2001@ginue.ac.kr

하는 것이다. 시공간을 넘어 민족 혹은 사회의 가치를 대변하거나 고유의 정체성을 문화의 형태로 표현하는 문화다양성은 모든 문화를 평등하게 가치 있는 소중한 자산으로 존중한다. 따라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출 수 있는 핵심으로 문화다양성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문화다양성교육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여러 민족의 문화와 가치를 체험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바라보는, 글로벌 관점을 함양하는 것이며 이는 개인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문화적 표현의 하나로서 무용은 역사적 산물이며 사회와 문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지역, 기후, 종교, 언어와 함께 여러 가지 스펙트럼 속에서 무용은 민족의 정체성을 표현하는가 하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드러내기도 한다.

문화다양성교육과 관련된 무용 연구는 크게 네 가지로 형태로 선행되었다. 첫째 문화다양성 및 문화다양성 교육에 관련된 기초연구, 둘째, 다문화개념에서 출발하여 문화다양성 이해를 목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셋째, 해외 무형문화유산과 지역축제를 통해 문화다양성 교육의 가치 및 가능성을 발견한 연구, 그리고 넷째, 문화다양성 존중을 기반으로 상호간의 문화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수용하는, 즉, 상호문화주의 입장에서 무용작품을 분석한 연구이다.

첫째, 문화다양성 및 문화다양성 교육에 관련된 기초연구로 이강순(2008)[1]을 비롯한 2개의 연구물이 있다. 이강순은 FGT(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무용의 문화적 역량요소, 문화적 역량구성요소, 그리고 세계화에 요구되는 무용의 문화적 역량 등을 탐색하였다. 홍애령·남진희(2018)[2]는 내용분석과 문헌고찰을 통해 문화다양성 관련 국내, 국제적 근거들을 분석하여 문화다양성과 사회통합을 위한 학교무용의 가치체계와 교육목표를 설정하였고 고경희(2011)[3]는 문화다원론적 관점에서 초등무용교육은 다양성과 문화적 세계화를 지향하는 무용교육이어야 함을 제안한 바 있다.

둘째, 문화다양성 관련 교육프로그램 연구로는 안비화(2012)[4], 서예원

1) 이강순(2008), 무용에서의 문화적 역량. 『문화예술교육연구』 3(2), pp.136-161.
2) 홍애령, 남진희(2018), 문화다양성과 사회통합을 위한 학교무용의 가치체계와 교육목표, 『한국체육학회지』 57(2), pp.399-411.
3) 고경희(2011), 다문화적 상호이해를 위한 무용교육 제고: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한국무용연구』 29(3), pp.203-228.
4) 안비화(2012), 다문화사회 아동을 위한 합창무용교육 프로그램,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4)[5], 정고운(2017)[6], 그리고 김근형(2017)[7]의 연구가 있다. 안비화(2012)는 다문화가정아동과 일반가정 아동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으로 합창무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서예원(2014)은 적극적 의미의 다문화교육으로서 초등학교 5,6학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정고운(2017)은 초등학교 민속무용프로그램 분석과 함께 중국, 베트남, 일본 민속무용의 교육과정 및 각 대학 연구 성과물을 수집, 분석하여 다문화통합교육으로서 아시아 민속무용교육 프로그램을 구안하였다. 한편, 김근형(2017)은 청소년의 문화다양성 역량 강화를 위해 춤 읽기와 춤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무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 간 그리고 문화 내에 존재하는 젠더, 소수자, 세대 간 차이까지도 존중하는 문화적 공존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셋째, 해외무형문화유산과 지역축제의 문화다양성교육에 관한 연구는 양민아(2008)[8]와 정옥희(2017)[9]의 연구가 있다. 양민아(2008)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한국 전통춤 학습은 자국민에게는 전통계승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러시아 현지인들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로 한국의 문화적 가치를 재고하게 함으로써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춤의 사회적 역할을 조명하였다. 정옥희(2017)는 지역축제인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천안흥타령축제를 문화기술지적 방법으로 탐구하여 지역축제의 한계성을 지적하면서 문화다양성 교육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넷째, 상호문화주의 관점에서 예술작품을 분석한 연구로는 백주미·박명숙(2012)[10]과 강혜성(2014)[11]의 연구가 있다. 백주미·박명숙(2012)은 컨템포러리 댄스의 특징인 상호문화주의 특성에 주목하여 피나바우쉬의 안무경향을 분

---

5) 서예원(2014), 초등무용에서의 문화다양성 교육의 가능성,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0(2), pp.13-22.

6) 정고운(2016), 민속무용을 활용한 다문화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7) 김근형(2017), 청소년의 문화다양성교육을 위한 통합무용교육프로그램 개발,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8) 양민아(2008),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화 속의 한국 전통춤의 사회적 역할-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지역을 중심으로-, 『무용역사기록학』 15, pp.1-31.

9) 정옥희(2017), 지역 춤축제의 담론 확장과 문화다양성 교육으로서의 전망 탐색: 안동국제탈춤축제와 천안흥타령축제를 중심으로, NRF KBM(Korean Research Memory).

10) 백주미, 박명숙(2012),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에서 본 Pina Baush의 안무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학회지』 12(2), pp.35-45.

11) 강혜성(2015), 상호문화주의에 근거한 현대 춤 작품 연구:〈피의 결혼〉, 〈두 나라〉, 〈태양이 닿는 곳에〉작품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석하였다. 주제, 움직임, 음악, 무대구성을 탐색한 결과 타문화 혹은 예술장르 간의 결합으로 다양한 안무의 형태가 나타났으며 이는 융합을 강조하는 상호문화주의의 예술적 가치로서 문화 간 교류와 소통이 가능한 긍정적 가치라 결론짓고 있다. 강혜성(2014) 역시 백주미·박명숙과 동일한 기본적 입장에서 현대춤 작품인 〈피의 결혼〉, 〈두 나라〉, 〈태양이 닿는 곳에〉를 분석하였다. 각 작품에서 국제교류와 문화혼성양식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춤 정체성은 정체성, 융합성, 보편성이라는 상호문화주의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며 이는 다양하게 발현되는 현대예술의 특성으로 조화로운 융합과 관객과의 소통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다문화란 개념에서 출발하여 문화 간, 그리고 문화내의 다름과 차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좀 더 확대된 시각에서 문화적 소통과 공존을 모색하는 문화다양성 관련 연구들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문화와 가치가 교차하는 한국 사회에서 '문화다양성'교육이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첫째, 문화다양성 교육에 대해 고찰하고 둘째, 2015개정 교육과정의 체육과의 성격, 그리고 3학년과 5학년의 체육교과서와 지도서의 표현활동내용을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교과의 내용은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진술되며 교과의 성취기준은 교과를 통해 학생들이 배워야할 지식과 기능의 총체이다"[12]. 이에 본 연구는 성취기준을 근거로 문화다양성의 요소를 탐색할 수 있는 3학년과 5학년의 표현활동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내용분석결과를 표현활동의 문화다양성 교육으로 규명하며, 마지막으로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교육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용의 문화다양성 교육을 탐색함으로써 무용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하고 향후 문화적 자산으로서 무용교육의 역할을 강화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II. 문화다양성 교육의 이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정의는 유네스코 33차 총회(2005년 10월)의 "문화적 표

12) 온정덕(2015),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과 주요개정내용』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p.14.

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을 참조해 볼 수 있다. 유네스코는 문화다양성을 인류공동의 유산으로 모든 이들의 이익을 위해 소중히 간직되고 보존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면서 협약 4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집단과 사회의 내부에서 그리고 집단과 사회 사이에서 전승된다.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문화유산이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통해 표현되고 증대되며, 전승되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사용된 방법과 기술에 관계없이 다양한 양식의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13]

문화다양성은 다양한 형태나 방식으로 나타나는 문화적 표현이며 개인을 비롯한 집단, 혹은 사회 사이에 전승되는 문화유산으로 유, 무형의 콘텐츠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나타난다. 즉, "유네스코가 제안한 문화다양성은 "'문화'와 '다양성'이 단순히 조합된, 다양한 문화가 나타나게 된 다문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다. 이 개념은 생물다양성의 개념에 근거하여 생태계의 존속을 위해서는 다양한 종의 생물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문화다양성 역시 인류에서 꼭 필요한 것"[14]으로 전제하고 있다. 다양한 종들의 존재가 자연계에 좋은 것이고 보존 될 가치가 있는 것처럼 문화다양성 역시 각 문화의 특수성을 지닌 것으로 존중받아야 하며 이러한 가치들이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출발한다. 문화다양성은 문화적 표현을 통해 더욱더 다양하게 확인되고 증대되는 것인데 '문화적 표현'에 관해서는 2014년에 제정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약칭:문화다양성법) 2조에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문화적 표현은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닌 것"을 의미하고 있다. 창의성에 기초한 문화적 표현은 개인 혹은 집단의 정체성, 의미, 혹은 고유한 가치를 상징하는 것이며 "각각의 문화적 다양성과 풍성함은 서로 다른 문화 간의 교류와 대화를 통해 창조와 발전의 원천으로, 문화다양성의 본질을 긍정과 풍요, 즉, 아름다움의 시각에서 재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15]

---

13)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https://www.unesco.or.kr, 2019. 5. 4.〉.
14) 전종한(2016),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개념의 함축과 「세계지리」 과목에서의 실천방안, 『대한지리학회지』 51(4), p.561.

문화다양성교육은 가치의 차이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다문화교육과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다문화교육이 다수의 주류문화에 대한 동화를 목적으로 한 차별적인 시각에서 출발한 것과는 구별된다. 다문화교육이 사회통합에 역점을 두어 한 국가 안에서의 공존을 모색한 것이라 한다면, 문화다양성교육은 문화의 본질에 입각하여 각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즉,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차이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생활양식에 대한 감수성을 획득하고 타 집단이나 사회와의 대화와 소통에 참여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다.[16]

설규주(2012)는 문화다양성 교육의 목표와 관련된 역량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즉, 문화나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양상을 이해하는 인지적 차원, 문화 다양성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정의적 차원, 그리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공존을 위해 실천하는 행동적 차원으로 목표를 구성하였고 그 관련역량은 다음 〈표 1〉[17]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1〉 목표 영역별 문화다양성 관련 역량

목표 영역	문화다양성 관련 역량
인지적 영역	문화 개념 이해, 다문화 현상 이해, 문화 변동 이해 등
정의적 영역	반편견, 정체성 형성, 다양성 인정, 상호 존중, 민주적 의식, 공동체 의식, 인권 의식, 평등, 정의 등
행동적 영역	대화, 협력, 의사소통, 대인관계 형성, 갈등 해결, 조사, 분석 등

III. 2015개정 체육과 교육과정과 문화다양성

2015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은 문화다양성의 핵심개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2009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표현활동은 '다양성'을 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주요가치로 설정하여 다문화교육을 실시하였다. 즉, 5-6학년군 표현활동의 내용으로 제시된 민속표현과 주제표현에서 '다양성'과 '독창성'을 핵심 가치로 하여 타문화의 춤을 경험하고 습득하는가 하면 독특하고 개성 있는 신체표

15) 앞의 글, p.566.
16) 설규주(2012),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및 매뉴얼 개발 연구, 『문화다양성 교육의 방향과 가치』(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p.23
17) 앞의 글, p.24.

현에 중점을 두어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 그리고 나와 다른 표현방법에 대한 차이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을 주요목표로 하였다. 한편, 2015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체육과의 본질, 역량을 중심으로 한 체육의 성격, 그리고 표현활동의 교육내용을 살펴볼 때 다문화 교육보다는 문화다양성 교육이 한층 더 강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 2015개정 체육의 성격에 나타난 문화다양성

체육과의 본질에서 체육은 타 교과와 구별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신체활동'을 들고 있으며, 신체활동을 체육교과의 도구로 삼아 학생들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체육과는 '국가'나 '사회'의 이해가 아닌 '세상'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다문화주의 보다 더 확장된 개념으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상호간 문화에 대한 열린 태도와 인식을 바탕으로 문화적 공존을 모색하고자 하는 문화다양성의 관점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체육과의 역량 중 표현활동에서 학습되기를 기대하는 '신체표현능력'역시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하는 일반역량과 함께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주목할 만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체 표현 능력'은 신체와 움직임을 매개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수용하는 능력이다. 즉, 신체움직임을 통하여 내면의 감정이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의 표현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여기에는 움직임을 매개로 하여 창의적이고 심미적인 주제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능력과 신체로 표현되는 것을 심미적·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모두 포함된다. 움직임 언어와 표현 요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체 움직임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의 신체 표현을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현상이나 사물의 아름다움과 가치,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향유할 수 있는 안목**을 형성할 수 있다.[18]

위에서 제시된 창의적 표현, 공감, 아름다움과 가치, 다양한 문화의 향유는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개념을 참조해 볼 때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강조하는 용어들이다.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온 유네스코는 제31차 유네스코 총회(2001.10.15-11.3)에서 문화다양성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

18) 교육부(2015), 『체육과 교육과정』, 제2015-74호(별책22), p.5.

선언문에 따르면 “문화란 한 사회와 집단의 성격을 나타내는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이며 또 예술이나 문자의 형식뿐 아니라 함께 사는 방법으로써 생활양식, 인간의 기본권, 가치, 전통과 신앙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19]으로 보았다. 지구촌화 되어 가고 있는 현재 인류의 공존과 평화를 위해서 문화다양성의 증진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으며 개인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문화적 표현을 선택할 개인의 능력이 보장될 때에 문화다양성은 보호되고 증진된다고 하였다. 1980년 예술가의 지위에 대한 권고는 사회의 정신적 유산을 반영하고 풍요롭게 하는 문화적 표현의 한 형태로 예술을 언급했다. 특정한 개인, 집단, 또는 사회의 창의성에서 생성된 문화적 표현은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예술적 차원에서 이를 반영하거나 문화적 가치를 상징하기도 한다. 특히 “민족 문화–종교적 차이의 공통된 척도로서 표현과 소통의 보편적 양식으로”[20] 예술은 특수성과 보편성을 함께 담지하고 있다. 문화적 표현의 한 형태로서 예술은 “문화를 형성하는 근본동력이면서도 문화에 갇히지 않고 문화를 새롭게 일궈내는 핵심”[21]으로 바라본 것이다. 신체표현은 예술적 표현의 하나로서 창조력과 심미적 안목, 다양한 가치습득을 주요 역량으로 하고 있다. 즉, 표현영역은 “인간의 움직임 욕구와 심미적 표현 의지를 신체를 통해 충족하여 의사소통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보다 풍성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 정서와 심미적 안목을 기를 수 있는 영역”[22]이다.

교육부가 제시하는 2015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 역시 신체표현역량과 연계하여 문화다양성에서 추구하는 가치습득을 강조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의적 사고 역량’, 인간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공감, 문화적 감수성에 기초해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그리고 자신의 느낌,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의사소통역량’은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며 표현활동은 문화다양성 관련역량을 실현하는 예술교육이라 할 수 있다.

---

19)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보호와 증진협약”, 〈https://unesco.or.kr, 2019. 5. 4.〉.
20) 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새 문화정책 준비단 다양성분과), p.2.
21) 오종우(2015), 『예술수업』 (서울: 어크로스), p.19.
22) 교육부(2015), p.6.

2. 체육교과서와 지도서의 표현활동에 나타난 문화다양성

가. 성취기준에 나타난 문화다양성

표현활동은 체육교과의 5개 영역중 하나이다. 체육과는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을 교과영역으로 설정하여 여러 가지 신체활동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이를 생활에 실천 하는 인간상 구현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초등학교 표현활동의 교수학습내용은 다음 〈표 2〉[23]와 같다.

〈표 2〉 초등학교 표현활동 표현활동의 내용체계

영역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요소				기능
			초등학교				
			3~4학년군		5~6학년군		
표현	표현의미 표현양식 표현창작 감상·비평	•인간은 신체표현으로 느낌이나 생각을 나타내며, 감성적으로 소통한다. •신체 표현은 움직임 요소에 바탕을 둔 모방이나 창작을 통해 이루어진다. •심미적 안목은 상상력, 심미성,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신체 표현의 창작과 감상으로 발달된다.	•움직임 표현의 의미 •움직임 표현의 기본동작 •움직임 표현의 구성방법 •신체 인식	•리듬 표현의 의미 •리듬 표현의 기본동작 •리듬 표현의 구성 방법 •민감성	•민속 표현의 의미 •민속 표현의 기본동작 •민속표현의 구성 방법 •개방성	•주제 표현의 의미 •주제 표현의 기본동작 •주제 표현의 구성방법 •독창성	•탐구하기 •신체표현하기 •감상하기 •소통하기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특징적인 것은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그리고 '기능'으로 교수학습내용이 구조화되었다는 점이다. '핵심개념'은 각 영역을 가장 대표하는 기초적 아이디어로 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기초 및 필수개념이며, '일반화된 지식'은 이러한 기초적인 아이디어를 문장으로 상세히 기술한, 각 영역의 일반

23) 교육부(2015),『체육과 교육과정』, 제2015-74호(별책 11), p.8.

적 원리에 해당된다. '기능'은 습득한 교과지식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즉, 탐구과정으로서 교과의 역량과 관련된 것이다. 표현활동은 표현의 의미, 표현양식, 표현창작, 감상•비평을 핵심개념으로 하여 움직임표현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구체적 방법을 습득하여 다채롭게 구성하는 창작과 감상의 과정을 통해 심미적 안목과 공감, 소통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활동의 학습내용은 문화구성원간의 예술적 견해의 차이를 발견하고 공감을 통해 표현을 확대, 변화시켜 활발한 상호작용을 추구하고 다채로운 소통능력을 개발하는 문화적 역량 습득과 다름 아니며 그 구체적 내용은 성취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교 표현활동의 성취기준은 총 16개이다. 움직임 표현, 리듬표현, 민속표현, 주제표현에 따라 각각 4개의 성취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중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주목해 볼만한 성취기준은 6개로 볼 수 있다. 즉 3학년 학습내용인 움직임 표현과 5학년 학습내용인 민속표현에서 제시된 것으로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개별 성취기준에 반영된 문화다양성 요소

개별 성취기준		문화다양성 요소
성취기준 번호	성취기준내용	
[4체04-02]	느낌이나 생각을 창의적인 움직임으로 표현하는데 적합한 기본 동작을 다양한 표현 상황에 적용한다.	창의성, 다양성
[4체04-03]	개인 도는 모둠별 움직임 언어나 표현 요소를 활용하여 구성한 작품을 발표하고 이를 감상한다.	창의성, 공감
[6체04-01]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적인 민속 표현의 종류와 특징을 탐색한다.	다문화 이해
[6체04-02]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 표현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데 기본 동작을 적용한다.	다문화 체험
[6체04-03]	민속 표현 활동에 표현된 다양한 표현 방법(기본 움직임, 대형, 리듬 등)을 바탕으로 작품을 구성하여 발표하고 이를 감상한다.	창의성, 공감
[6체04-04]	세계 여러 민족의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개방적인 마음으로 참여한다.	문화적 정체성, 개방성

성취기준은 각 교과의 교육목표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내용이다. 3학

년은 '움직임 표현'을 내용요소로 하여 움직임 언어와 표현요소를 통해 창의적인 표현을 추구함으로써 자신의 신체움직임과 신체의 변화를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성취기준[4체4-02]를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살펴 볼 때 문화다양성 개념에 내포되고 있는 '창의성'과 '다양성'의 요소를 반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성취기준은 움직임의 기본동작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서 움직임 언어와 표현요소를 익혀 이를 활용해 개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보다 차별화된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하고 있다. 자신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방법을 익혀 학생들은 창의적 사고를 높일 뿐 아니라 자신의 신체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창의성 속에서 표현의 다양성을 인식하게 되며 창의성과 다양성의 가치는 성취기준 [4체4-03]와 같이 모둠간의 활동을 통해 더욱 더 심화학습하게 된다. 즉, 개인의 차이뿐 아니라, 집단 내, 집단 간의 차이를 발견하며 표현과 발표, 그리고 이를 감상하는 과정을 통해 협력과 공감능력, 그리고 소통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성취기준 [6체4-01]], [6체4-02], [6체4-03], [6체4-04]는 글로벌 표현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개방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문화다양성의 핵심내용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5학년은 '민속표현'을 내용요소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민속춤을 통해 다양한 세계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는 무형적 차원의 탐색, 즉 '표상으로서의 문화다양성'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된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2001)에서 문화다양성은 생태 다양성이 자연에 필요하듯 문화다양성은 교류·혁신·창조성의 근원(제1조)이라 하였다. 이는 문화다양성이 "다양한 환경 속에 적응하면서 축척된 각 문화집단의 경험과 지식, 가치와 정신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표상"[24]이며, 민속표현은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춤을 경험하고 구성, 발표함으로써 표상으로서의 문화집단의 고유한 가치와 정체성, 다양한 의미세계를 개방적인 태도로 이해,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 교육내용에 나타난 문화다양성

2015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검정교과서와 지도서는 총 8개이다. 교학사[25],

24) 전종한(2016), p.564.

25) 김방출, 이정연, 이영석, 장동운, 김진국, 한은상, 서재철, 박영배, 정현호, 이미지, 정고운(2017), 『초등학교 체육(3-4학년군)3』, 『초등착교 체육(5-6학년군)5』(서울: ㈜교학사).

금성출판사[26], 동아출판[27], 비상교육[28], 와이비엠[29], 지학사[30], 천재교과서[31], 그리고 천재교육[32]으로 3-4학년 교과서는 2018년부터 배포, 시행되고 있으며 5,6학년 교과서는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각 출판사별로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구성한 학습내용과 문화다양성 관련 요소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출판사 별 3학년 체육교과서 표현활동의 내용과 문화다양성 요소

출판사	단 원	주 제	차시	문화다양성 요소
1. 교학사	•몸을 다양하게 움직여요	•내 몸을 알고 움직여요 •이동하면서 몸을 움직여요 •제자리에서 몸을 움직여요 •도구를 가지고 움직여요 •움직임 요리사의 오늘의 요리	20	•적극적참여 •칭찬 •민주적 의사결정 •모둠원과의 호흡
	•몸으로 표현하는 재미를 느껴요	•높게 또는 낮게 표현해요 •크게 또는 작게 표현해요 •빠르게 또는 느리게 표현해요 •무거운 또는 가벼운, 강한 또는 약한 느낌을 표현해요 •친구와 함께 표현해요 •움직임 창작 무대에 초대해요 •새로운 생각이 자라요		

26) 이재용, 남석희, 유미희, 박대권, 이제행, 박창범, 김신규, 이승희, 맹현우, 이국재, 박주영, 송빛나(2017), 『초등학교 체육(3-4학년군)3』,『초등착교 체육(5-6학년군)5』(서울: 금성출판사).

27) 주명덕, 성기훈, 조미혜, 최의창, 이옥선, 조기희, 장경환, 박미림, 박용남, 이우필(2017), 『초등학교 체육(3-4학년군)3』,『초등착교 체육(5-6학년군)5』(서울: 동아출판).

28) 손준구, 박숙자, 정영미, 송지환, 안병철, 이경원, 김중형, 한은정, 남윤제, 엄혁주, 김성진, 손혁준,『초등학교 체육(3-4학년군)3』,『초등착교 체육(5-6학년군)5』(서울: ㈜비상교육).

29) 유생열,이기청, 이강순, 이두형, 한상모, 전임환, 김도엽, 이창근,넌수진, 김정희, 민경진, 이한웅, 정주식(2017), 『초등학교 체육(3-4학년군)3』『초등착교 체육(5-6학년군)5』(서울: ㈜와이비엠).

30) 안양옥, 조순묵, 배성제, 장용규, 엄우섭, 김갑철, 권민혁, 석승하, 박상봉, 이정택, 차민철, 김동식, 허나리(2017),『초등학교 체육(3-4학년군)3』,『초등착교 체육(5-6학년군)5』(서울: ㈜지학사).

31) 박명기, 홍성철, 김명철, 김선철, 노영숙, 이상숙, 이재만, 이태구, 정경식, 조동협, 조경희, 홍영순(2017), 『초등학교 체육(3-4학년군)3』,『초등착교 체육(5-6학년군)5』(서울: ㈜천재교과서).

32) 이대형, 배문엽, 고문수, 전세명, 안해룡, 조혜경(2017), 『초등학교 체육(3-4학년군)3』,『초등학교 체육(5-6학년군)5』(서울: ㈜천재교육).

	•단원마무리	•내용을 정리해요, 생활에 적용해요, 스스로 평가해요		
2. 금성출판사	•자유롭게 움직여요	•제자리에서 움직여요 •이동하면서 움직여요 •도구를 들고 움직여요	13	•격려, 칭찬 •협력 •타인의 의견 존중, 문제해결 •창의성 •인내심
	•나의 생각을 몸으로 표현해요	•내 몸을 요리조리 움직여요 •크게, 작게, 높게, 낮게 움직여요 •다양한 느낌으로 움직여요 •친구와 함께 움직임을 변화시켜요		
	•정리	생활 속에서 실천해요, 단원을 마무리해요		
3. 동아출판사	•생각대로 느낌대로 움직임 표현	•내 몸을 알고 움직여요 •느낌과 흐름을 살려 움직여요 •공간을 생각하며 움직여요 •관계를 생각하여 움직여요	20	•자기표현 •협동 •배려 •자신감 •칭찬,격려 •개방성, 수용 •공감 •독창적 표현 •감상태도 •자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아름다운 움직임, 재미있는 표현	•이동하면서 움직여요 •제자리에서 움직여요 •도구와 함께 움직여요 •움직임 표현동작을 만들어요 •생활속에서 실천해요		
4. 비상교육	•다양한 움직임을 몸으로 표현해요	•제자리 움직이기 •이동하며 움직이기 •도구를 이용하여 움직이기 •작품 발표하고 평가하기		•상호작용 •소통, 수용 •격려 •바른 태도-존중 •칭찬, 장점찾기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 •협동심 •배려 •책임감 •자기수용
	•생각이나 느낌을 몸으로 표현해요	•몸을 이용하여 표현하기 •빠르기를 이용하여 표현하기 •무게를 이용하여 표현하기 •높이를 이용하여 표현하기 •친구들과 함께 표현하기 •작품 발표하고 평가하기	17	

	•단원정리	•지식 톡톡, 창의 쑥쑥! •단원 마무리		
5. 와이비엠	•자유롭게 움직이는 즐거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움직여요 •도구를 가지고 움직여요 •움직임을 만들어 발표하고 감상해요	18	•상상력 •독창성 •심미적 표현력 •감상력 •격려, 용기 •배려 •공감능력, 심미적 안목 •협동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기쁨	•여러 공간에서 다양하게 표현해요 •힘과 빠르기를 바꾸며 움직여요 •친구와 함께 표현해요 •시를 읽고 움직임으로 표현하고 감상해요		
	•마무리해요			
6. 지학사	•몸으로 말하는 움직임 언어	•움직임 언어 알아보기 •옴직임 언어의 기본 동작 표현하기 •몸의 움직임을 생각하며 작품 발표하고 감상하기		•격려 •용기 •협동 •모둠원 전체 참여
		•중단원 마무리		
	•움직임을 아름답게 나타내는 표현요소	•표현요소 알아보기 •표현 요소에 따른 움직임 경험하기 •몸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며 작품 발표하고 감상하기		
		•중단원 마무리		
	•영역의 마무리	•놀이터, 감상		
7. 천재교과서	•요렇게, 조렇게, 여러 가지 움직임	•재미있게 시작해요 •제자리에서 표현하기 •이동하면서 표현하기 •도구를 이용하여 표현하기 •움직임 연결하여 발표하기 •표현놀이터	19	•공유하는 의사소통 능력 •격려 •긍정적 피드백(칭찬) •협력 •배려 •소통 •의견존중 •다함께 참여 •감상태도-잘된 점 칭찬
	•새롭고 다양하게, 신체 움직임 표현	•재미있게 시작해요 •몸을 이용하여 표현하기 •공간에 변화를 주어 표현하기 •빠르기와 무게를 다르		

		게 하여 표현하기 •관계를 생각하며 표현하기 •작품 발표하고 감상하기 •표현 놀이터		
	•단원 마무리			
8. 천재교육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움직이기	•제자리에서 움직이기 •이동하며 움직이기 •도구를 가지고 움직이기	17	•노력하는 태도 •심미적 감성역량-창의적 움직임, 심미적 표현, 의사소통 역량기르기 **장애학생지도
	•움직임 표현하기	•몸을 이용하여 표현하기 •높낮이와 크기를 생각하며 표현하기 •동물의 느낌을 표현하기 •친구들과 관계를 생각하며 표현하기 •이야기를 만들어 표현하기		
	•단원 마무리			

8개의 교과서에 제시된 단원구성을 보면 모든 교과서가 2개의 중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원은 움직임 언어를 탐색하고 두 번째 단원은 움직임 표현요소를 통해 움직임 언어를 다양하게 변화, 구성하는 구체적 방법을 전달하고 있다. 단원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중단원 명칭은 대부분 '표현', '생각과 느낌', '다양한', '재미', 그리고 '아름다움'이라는 용어로 집약되는데 이중 '표현', '다양한', '아름다움'은 문화 다양성 개념에 함축된 의미로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감수성 함양을 통해 타자와 소통하는 문화적 민감성과 관련되며, 무용의 문화적 역량의 구성요소이다.

〈표4〉에 제시된 문화다양성 요소는 지도서에서 학습도움자료로 교수자에게 요청한 가치들이다. 대부분의 가치들이 격려, 칭찬, 협력, 배려, 자신감, 개방성, 수용, 공감, 창의성, 독창성, 상호작용, 소통, 존중, 감상력, 의견존중, 창의적 표현 등인데 이러한 덕목들은 정의적, 행동적 영역에서 획득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 관련 역량이다.

이러한 문화다양성 요소는 다음 〈표 5〉 5학년 민속표현에서도 나타난다.

〈표 5〉 출판사별 5학년 체육교과서 표현활동의 내용과 문화다양성 요소

출판사	내 용	차시	문화다양성 요소
1. 교학사	•봉산탈춤, 강강술래 •마임, 구스타프스 스콜, 티니클링	20	•적극적 참여 •배려 •춤출 때 예의 •칭찬 •존중 •다문화 경험 •개방적 자세 •바른 감상태도
2. 금성 출판사	•강강술래, 탈춤 •티니클링, 구스타프스콜	13	•고유한 가치 강조 •존중하는 태도 •춤출 때 예의 •적극적 동작 표현 •타협, 협력 •타인의 의견 존중 •민주적 의사 결정, 문제 해결 •배려 •개성 있는 표현 •격려 •나와 다른 생각이나 문화 수용 •감상태도
3. 동아 출판사	•봉산탈춤, 강강술래 •티니클링, 구스타프스콜, 마임	21	•문화적 배경 탐색능력 •의사소통 능력 •개방적 마음 •다양성 존중, 태도 •협력 •스스로 탐구 하는 능력 •인내심 •칭찬
4. 비상 교육	•봉산탈춤, 강강술래 •티니클링, 구스타프스 스콜	18	•독창적인 춤 •바른 감상자세 •협동 •의견존중 •수용 •스스로 과제 수행 •개방성 ※장애학생 지도-적극적 참여유도
5. 금성 출판사	•강강술래, 탈춤 •티니클링, 구스타프스콜	13	•고유한 가치 강조, 존중 하는 태도 •춤출 때 예의 •적극적 동작표현 •타협, 협력 •타인의 의견존중, 민주적 의사결정, 문제해결 •배려 •개성 있는 표현장려 •격려 •나와 다른 생각이나 문화 수용 •감상태도
6. 와이 비엠	•강강술래, 소고춤 •티니클링, 구스타프스콜	18	•공감 •개방적 마음, 각 나라 문화를 이해 존중하는 마음 •심미적 표현 •협력 •감상력 •칭찬 •지구촌-함께 어울려 살아 가는 지구촌 •상대방에 대한 예의 존중하는 태도 •배려 •신체부자유 아동을 위한 동작지도 •민속무용보존 ,계승 -사명감, 책임감 •다양한 문화 공존 •자신감 •의사소통

7. 천재 교과서	•강강술래, 탈춤, 소고춤 •티니클링, 구스타프스콜	19	•개방성-열린 마음, 존중하는 태도, 다양한 문화수용	•창의력 •스스로 찾기 •칭찬, 격려 •다른 생각과 표현존중	•춤출 때 예의 •세계는 하나
8. 천재 교육	•강강술래, 탈춤 •티니클링, 구스타프스콜, 마임	17	•친근감 •자부심 •배려 •협력 •적극참여	•창의 •장애학생 지도 •칭찬 •춤출 때 예의	•문화적 보편성

5학년 민속표현에서는 학생들이 습득하여야 할 가치로서 '개방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무용을 학습함으로써 각 민족의 문화적 특성이 춤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민속표현의 주된 활동이다. 각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개방적 태도는 다양한 민속춤을 접하는데 있어 기초가 되는 중요한 가치이며 성취기준 [6체04-04]에서도 이를 강조한 바 있다. 개방성은 "다양한 민속춤을 경험하고 감상하는 과정에서 그 나라 민족의 역사와 문화, 언어와 풍습을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게 하면서, 낯선 문화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 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나와 다른 생각이나 감정, 생활양식을 가진 사람에 대해 이해하고 배려하는 개방적인 태도를 기룰 수 있는"[33] 것이며 이는 문화다양성이 요구하는 핵심역량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 교과서에 수록된 민속표현의 내용은 〈표5〉와 같다. 즉, 우리나라 민속무용으로는 강강술래, 탈춤, 소고춤, 그리고 외국의 민속무용으로는 티니클링, 구스타프 스콜, 마임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민속표현은 민속표현의 의미, 기본동작, 구성방법을 통해 각 민속의 고유한 특성을 표현하고 체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습지도시 도움자료로서 제시된 내용과 용어는 문화다양성교육의 핵심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즉, 다문화경험, 개방적 자세, 바른 감상태도, 춤출 때 예의, 타협, 협력, 타인의 의견 존중, 배려, 격려, 나와 다른 생각이나 문화수용, 의사소통, 공감, 다양한 문화 공존, 지구촌, 보존과 계승, 세계는 하나, 보편성, 개방성 등은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에서 문화다양성 관련 역

33) 이재용 외(2017), 『초등학교 체육(5-6학년군)5 지도서』 (서울: 금성출판사), p.265.

량이라 할 수 있다. 3학년의 움직임 표현의 문화다양성 요소와 차이점은 다문화 경험, 고유한 가치, 개방적 마음과 자세, 민속무용의 보존과 계승, 문화적 보편성으로 이는 세계 문화에 대한 개방성을 강조하는 민속표현의 가치를 강조한 것이다. 또한 5학년 교과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3개의 지도서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지도내용을 수록하고 있어 신체부자유아동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함께 살아가는 반 편견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외 2개의 지도서에서는 '지구촌-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지구촌', 그리고 '세계는 하나'라는 심화활동을 통해 지구촌의 다양한 문화를 함께 바라보고 인식하는 인류 사회에 초점을 둔 문화다양성개념을 제시하였고 '같은 듯 다른 춤'이라는 활동으로 우리나라 민속춤과 비슷한 표현을 지닌 다른 나라 민속춤을 소개함으로써 문화적 보편성에 대한 인식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IV. 표현활동의 문화다양성교육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표현활동은 '문화적 표상'으로서의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역량을 추구하는 교육이다. 교육과정에 예술적 활동이 개입된 표현활동은 교육 목표와 내용, 그리고 교수·학습지도방안에 제시된 개념에 근거해 볼 때 문화다양성 관련 개념 및 요소를 반영하고 있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표현활동의 문화다양성 교육 내용 및 관련개념

교과의 본질		세상에 대한 이해
표현활동의 목표		표현의 가치 이해, 창의적 신체표현, 심미적 안목
문화다양성 관련 개념	인지적 영역	다문화 이해, 다문화 경험
	정의적 영역	정체성(개성 있는 표현, 자기표현, 고유한 가치), 개방성, 다양성, 수용, 존중, 민주적 의사결정, 공감
	행동적 영역	협동, 타협, 배려, 인내심, 의사소통, 문제해결
교수학습방법		통합적 교수학습

표현활동은 표현의 가치를 인정하는 예술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문화의 차이를 발견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 다양한 신체활동의 가치와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변의 세계를 이해하고 인식하고자 하는 체육과의 본질적 성격은 신체활동의 문화적 의미에 주목한

것이며 이는 생물다양성에 기반을 둔 인류문화의 다양성, 즉, 문화다양성의 기본적 시각과 맥을 같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수학습과정에서 학습도움자료로 제시된 개념들 역시 세 가지 영역에서 문화다양성 관련 역량을 강조한 것이다.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행동적 영역으로 인지적 영역에서는 다문화 이해, 다문화 경험 및 체험을, 정의적 영역에서는 개성 있는 표현을 장려하거나, 자기표현, 혹은 고유한 가치에 관련된 정체성을 비롯하여 개방성, 다양성, 수용, 존중, 민주적 의사결정, 그리고 공감이라는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행동적 영역에서는 협동, 타협, 배려, 인내심, 의사소통, 문제해결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문화다양성 관련 요소들은 2015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인간상 구현에 초점을 둔 결과라 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이념(제2조)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이다. 우리나라 국시(國是)이기도 한 홍익인간은 인간 사회의 기본 원칙으로 모든 국민이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화합을 강조하는 의미이다. 인격도야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민주국가의 발전, 그리고 더 나아가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아정체성을 확립한 자주적인 인간,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창조하는 창의적 인간, 다원적 가치를 이해하여 인류 문화를 즐기고 발전시키는 문화적으로 교양 있는 인간, 그리고 배려와 나눔을 통해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인간상 구현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34]. 즉,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는 모든 교과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 지향점이며 이를 중심으로 교과별 핵심역량이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표현활동에서도 신체표현능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학습지도에 대한 유의 및 권고사항을 지도서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 교사용 지도서는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구성된 교과서의 교육내용과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각 교과서에서는 '교과역량 guide', ' 역량지도tip', '역량기르기', '교수tip', '창의인성tip', 그리고 '창의인성지도tip'으로 신체표현능력을 비롯해 창의성과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지도방안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앞서 제시된 〈표 6〉의 문화다양성 관련 개념들로 일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에서 습득되는 문화다양성 관련 역량은 특히 표현활동의 성취기준과 내용체계에서 제시된 교수학습

34) 온정덕(2015), pp.7-8.

방법으로 인해 더욱더 개발될 수 있다. 즉, 개인 또는 모둠별로 탐구하기, 신체표현하기, 감상하기, 의사소통하기라는 기능의 실천은 토론과 토의라는 협업을 통해 작품의 주제선정에서부터 움직임 구성과 표현, 발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의 가치를 발견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함께 표현하고 공감함으로써 문화적 자아의식, 문화적 감수성을 일깨우는 것이다. 또한 신체활동을 직접 체험할 뿐 아니라 읽기, 쓰기, 감상하기, 조사하기, 토론하기 등 간접체험활동을 통합하여 이루어지는 통합적인 교수학습방법으로 아동에게 익숙한 시 혹은 동화 등을 소재로 다양한 상황을 설정하여 지식, 기능, 태도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문화다양성역량을 습득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표현활동은 학습자의 문화적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교수자료와 교수법을 활용하여 개인, 혹은 집단의 미적 감각과 창의적 사고의 다양성을 발견하고 존중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21세기 인재가 갖추어야 할 글로벌 시민정신과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문화다양성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초등학교 표현활동의 문화다양성 교육을 탐색하여 문화다양성 교육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5개정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구성된 3학년과 5학년의 체육교과서와 지도서의 표현활동내용을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내용으로는 문화다양성 교육의 이해, 2005개정 체육과 교육과정과 문화다양성, 그리고 표현활동의 문화다양성 교육을 논의하였다.

2015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성격, 그리고 교과서와 지도서의 교수·학습내용에 나타난 문화다양성 요소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서 문화다양성 관련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즉, 다양한 생각과 표현이 창조의 핵심적 요소임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개인, 집단, 사회, 국가공동체의 문화적 교류와 소통을 가능케 하는 문화적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보다 발전적인 문화다양성교육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습내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문화다양성 교육은 '차이'와 '다름'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표현활동에 제시된 문화다양성 교육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민속춤에 한정하여 동일한 내용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즉, 수차례 교육과정이 개편된 상황 속에서도 민속표현의 신체활동 예시로 제시된 춤의 종류로는 강강술래, 탈춤 등과 같은 한국의 민속춤, 그리고 티니클링, 구스타프스콜, 마임 등과 같은 외국의 민속춤이 일관되게 제시되었다. 문화다양성 교육이 문화와 문화다양성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에 주력하는 것이라면 민속무용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춤, 즉, 민족무용, 원시무용, 예술무용 등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춤을 여러 가지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 문화적 의미를 탐색할 수 있는 교수자료의 다양성이 요구된다.

둘째, 지구촌 교육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일부 교과서에서는 '우리나라 탈춤과 베네치아 가면놀이의 비교와 감상', '같은 듯 다른 춤', '이야기로 전하는 훌라','우리반 민속무용보존회 블로그 만들기', '가상의 민속춤 창작하기', '세계는 하나'라는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민속춤을 비교하고 그 차이를 발견함으로써 전통의 보존과 계승에 대한 책임감, 한국문화의 정체성 이해를 더욱 더 강조하였다. 또한 나라별 특징과 춤 동작을 연관 지어 각국의 문화적 특징을 반영하는 민속춤을 창작하는가 하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지구촌의 모습을 주제로 삼아 표현하는 활동 등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학생들이 인식하고 이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은 심화활동이나 부수적인 자료로 제시되었고 일반적으로는 여전히 여러 나라 전통춤의 기능적 학습을 통해 다양한 춤을 경험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적 공존을 추구하는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 환경과의 공존, 인류, 평화 등과 관련된 주제를 활용하여 좀 더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방출, 이정연, 이영석, 장동운, 김진국, 한은상, 서재철, 박영배, 정현호, 이미지, 정고운(2017).『초등학교 체육(3-4학년군)3』. 서울: ㈜교학사.

김방출 외(2017).『초등학교 체육(5-6학년군)5』. 서울: ㈜교학사.

박명기, 홍성철, 김명철, 김선철, 노영숙, 이상숙, 이재만, 이태구, 정경식, 조동협, 조경희, 홍영순(2017).『초등학교 체육(3-4학년군)3』. 서울: ㈜천재교과서.

박명기 외(2017).『초등학교 체육(5-6학년군)5』. 서울: ㈜천재교과서.

손준구, 박숙자, 정영미, 송지환, 안병철, 이경원, 김중형, 한은정, 남윤제, 엄혁주, 김성진, 손혁준(2017).『초등학교 체육(3-4학년군)3』. 서울: ㈜비상교육.

손준구외(2017).『초등학교 체육(5-6학년군)5』. 서울: ㈜비상교육.

안양옥, 조순묵, 배성제, 장용규, 엄우섭, 김갑철, 권민혁, 석승하, 박상봉, 이정택, 차민철, 김동식, 허나리(2017).『초등학교 체육(3-4학년군)3』. 서울: ㈜지학사.

안양옥 외(2017). 초등학교 체육(5-6학년군)5』. 서울: ㈜지학사.

오종우(2015).『예술수업』. 서울: 어크로스.

유생열, 이기청, 이강순, 이두형, 한상모, 전임환, 김도엽, 이창근, 전수진, 김정희, 민경진, 이한웅, 정주식(2017).『초등학교 체육(3-4학년군)3』. 서울: ㈜와이비엠.

유생열 외(2017).『초등학교 체육(5-6학년군)5』. 서울: ㈜와이비엠.

이대형, 배문엽, 고문수, 전세명, 안해룡, 조혜경(2017).『초등학교 체육(3-4학년군)3』. 서울: ㈜천재교육.

이대형외(2017).『초등학교 체육(5-6학년군)5』. 서울: ㈜천재교육.

이재용, 남석희, 유미희, 박대권, 이제행, 박창범, 김신규, 이승호, 맹현우, 이국재, 박주영, 송빛나(2017).『초등학교 체육(3-4학년군)3』. 서울: 금성출판사.

이재용외(2017).『초등학교 체육(5-6학년군)5』. 서울: 금성출판사.

주명덕, 성기훈, 조미혜, 최의창, 이옥선, 조기희, 장경환, 박미림, 박용남, 이우필,『초등학교 체육(3-4학년군)3』. 서울: 동아출판.

주명덕외(2017).『초등학교 체육(5-6학년군)5』. 서울: 동아출판.
강혜성(2015). 상호문화주의에 근거한 현대 춤 작품 연구: <피의 결혼>, <두 나라>, <태양이 닿는 곳에>작품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고경희(2011). 다문화적 상호이해를 위한 무용교육 제고: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한국무용연구』, 29(30): 203-228.
김근형(2017). 청소년의 문화다양성교육을 위한 통합무용교육프로그램 개발.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백주미, 박명숙(2012).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에서 본 Pina Baush의 안무경향에 관한 연구.『한국무용학회지』, 12(2): 35-45.
서예원(2014). 초등무용에서의 문화다양성 교육의 가능성.『한국초등체육학회지』, 20(2): 13-22.
안비화(2012). 다문화사회 아동을 위한 합창무용교육 프로그램.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양민아(2008).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화 속의 한국 전통춤의 사회적 역할-러시아 상트페데르부르크 지역을 중심으로-.『무용역사기록학』, 15: 1-31.
이강순(2008). 무용에서의 문화적 역량.『문화예술교육연구』, 3(2): 136-161.
전종한(2016).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개념의 함축과「세계지리」과목에서의 실천방안.『대한지리학회지』, 51(4):561-563.
정고운(2016). 민속무용을 활용한 다문화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옥희(2017). 지역 춤축제의 담론 확장과 문화다양성 교육으로서의 전망 탐색: 안동국제탈춤축제와 천안흥타령축제를 중심으로, NRF KBM(Korean Research Memory).
홍애령, 남진희(2018). 문화다양성과 사회통합을 위한 학교무용의 가치체계와 교육 목표.『한국체육학회지』, 57(2): 399-411.
교육부(2015).『체육과교육과정』. 제2015-74호(별책11).
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새 문화정책 준비단 다양성 분과.
설규주(2012).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및 매뉴얼 개발 연구.『2012

제2회 문화다양성 교육 심포지엄자료집: 문화다양성 교육의 방향과 가치』.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온정덕(2015).『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과 주요 개정 내용』.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https://www.unesco.or.kr, 2019. 5. 4.>.



논문발표 IV

다양성을 실현하는 문화생태계와 무용

–정책 및 간학제적 관점–

김 지 영

(상명대학교 교수)

다양성을 실현하는 문화생태계와 무용
-정책 및 간학제적 관점-

김 지 영 *

Ⅰ. 들어가며: 왜 문화다양성인가?
Ⅱ. 문화정책의 목표 '문화다양성'
Ⅲ. 문화다양성의 주요쟁점과 담론들
Ⅳ. 문화다양성 무용연구의 동향
Ⅴ. 나가며: 정책 및 간학제적 관점에서의 성찰

Ⅰ. 들어가며: 왜 문화다양성인가?

1. 문화다양성의 시대

최근 종영된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한국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다양한 매체에서 패러디되고 유행어를 낳을 만큼 대중들에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고 획일화된 교육제도, 그리고 초등교육부터 대학입시까지 사교육 열풍을 올리고 있는 현 세태를 풍자한 극으로부터 얻는 공감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이 드라마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개인의 다양성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한국입시의 이상형이자, 치열한 경쟁구조의 '쥐 경주(Rat Race)'로 상징화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다양성으로부터 터부시된 상징들이 무수했다. 특히, 젠더와 관련된 이슈에서 상당하다. '여성스러운' 또는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는 성적 특성을 사회적으로 규정짓거나, 신체미의 기준을 고정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미디어를 통해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려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기몸 긍정주의 (body positive)'를 들

* 상명대학교 교수, artsedu@smu.ac.kr

어 볼 수 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고착된 인식에 맞서거나 새롭게 바라보는 현상이다. 특히, 고전적인 여성성보다는 역설적 메시지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유도하는 변화를 읽을 수 있다.

그렇다면, 무용을 향한 사회의 고정관념은 없었던가? 이 역시 역설적인 메시지를 추구하고 있는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최근 발레리나를 모델로 한 브랜드 광고를 예로 살펴보자. 리복코리아는 '완벽은 없다(Perfect Never)'를 기치로 '우먼스 캠페인'을 펼쳤다. 이 광고는 발레리나 강수진의 여성성과 우아한 아름다움보다는 강인하고 숭고한 노력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타고난 DNA에 도전하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SKⅡ'화장품 광고, 서구 중심의 신체와 미적 기준에 넘어서는 동양인 최초 프리마돈나가 모델로 등장한다. 이처럼 발레리나를 모델로 기용한 두 광고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고착된 사회 인식에 맞서 도전하는 무용인들의 정신과 그 과정의 경이로움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이다. 이들 모두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도전과 다양성을 포용하는 변화된 사회 트렌드를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얼굴 생김이 다른 것처럼, 예술가마다 표현이 다른 것처럼, 사람들이 서로 생각하는 것과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성은 사람과 사람의 차이, 집단과 집단의 차이, 지역사회 간의 차이, 나라 간의 차이, 문화권 간의 차이가 될 수 있다. 현재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은 문화다양성과 연관하고 있다. 바야흐로 '문화다양성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세계의 관심사: 차이의 공존과 지속가능성

문화다양성은 전 세계의 공동 관심사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에는 1990년대 이후, 교통통신의 발달과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한 세계화의 가속화 양상이 현대사회에 예견치 못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부터이다. 사회질서의 혼란과 문화 혼종성 등 정체성과 확실성의 상실을 초래하게 되었고, 인간소외, 폭력, 가난, 고용난, 홈리스, 환경적 안전성 부재, 자민족 중심주의, 불관용 등의 부정적 영향력에 놓이게 된 것이다(UNESCO, 2010: 이동성, 주재홍, 김영천, 2013).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선언문(2001)에서는 문화다양성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문화는 시공간에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이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

하는 집단, 사회의 정체성, 독창성을 구현한다. 생태 다양성이 자연에 필요한 것처럼 교류, 혁신, 창조성의 근원으로서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공동 유산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혜택으로서 인식하고 확인해야 한다." 즉, 민감성과 의사소통능력, 그리고 개인의 성찰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비평적 사고 함양을 문화다양성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2005년,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가치
- 문화다양성은 인간성을 규정하는 속성이다.
- 문화다양성은 풍요롭고 변화무쌍한 세계를 창조하고, 선택 범위를 늘려주며, 인간의 능력과 가치를 증대시킨다. 그러므로 문화다양성은 공동체, 민족,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천이다.
- 문화다양성은 민주주의, 관용, 사회정의, 민족들과 문화들 사이의 상호존중이라는 틀 안에서만 번성하는 것이다.
- 문화는 시공간을 넘어 다양한 형태를 취하며, 개성 있고 다양한 정체성, 인류를 구성하는 민족과 사회의 문화적 표현으로 구현된다.
- 동시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은 우리 생각, 정체성, 영감을 실어 나르고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발전과 혁신을 이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문화다양성이 왜 중요한가? 정부의 문화다양성 정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 문화다양성을 보호, 증진, 유지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요건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색적이고 다양한 문화를 나누고 함께하며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이다. 셋째, 개인의 열린 시각을 키우고 창의력을 증진시키며 문화 창조에 기여하고 문화융성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유네스코와 정부가 명시하는 중대한 개념과 중요한 이유들은 마치 잘 쓰여진 교과서처럼 이상적으로 느껴진다. 발제를 준비하며, 여러 문헌들이 밝히고 있는 문화다양성의 공통된 핵심을 다음과 같이 쉽게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차이는 곧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차이가 공존하는 다양성은 창의성의 근원,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자 발판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창조와 혁신을 만들어낸 이들은 획일화된 사회보다 다양한 사회가 가질 수 있는 창의적 가능성을 이구동성 이야기한다.

II. 문화정책의 목표 '문화다양성'

1. 문화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국가 차원의 문화분야 법제의 변천과정과 시기별 문화행정의 추진체계 변화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45년부터 1959년에는 국가 문화정책은 주로 통제와 동원의 방식이 주를 이루었던 '공보수단으로서 문화행정'이 특징인 시기였다. 둘째, 1960년부터 1989년에는 국가 주도의 진흥전략과 육성을 바탕으로 문화정책을 수립하던 '국가 중심의 문화진흥과 육성'의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공연법(1961년)', '문화예술진흥법(1972년)', 문화행정 담당 부처(문화공보부 체제)와 기관(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을 신설하기도 하였다. 셋째, 1990년부터 2017년에는 문화발전을 추구하였다. 1990년대 들어 문화부의 설치는 문화정책의 거시적 방향으로 자리를 잡기 위한 시기였으며, 2000년대 문화예산 1%를 달성하며 문화정책 안정화에 접어들었다.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2010년 문화기본법 제정, 그리고 예술지원 정책에서의 민간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팔길이 원칙'의 실현과 문화향유권 증진 방향으로 추동되었다. 그러나 예술지원에 대한 정부 개입의 강화나 블랙리스트 등의 작동으로'문화'를 중시하는 문화주의적 접근만으로는 권력의 위협으로부터 문화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정책의 성찰과 새로운 과제를 요구하는 시점에 놓여졌다.

문화정책은 국가의 행정만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 특히 문화적 변화와 긴밀한 연관 속에서 전개되므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을 포괄한다. 협의의 관점에서 문화정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문화행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랫동안 정부 주도 문화행정이 곧 문화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시대적 변천 속에서 **우리나라 문화정책은 국가주의적 문화정책으로부터 문화국가로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한 전개과정**을 거쳐 왔다. 그리고 그간의 문화정책 흐름으로부터 우리사회의 성찰은 다가오는 미래 정책의 개선과제로 문화다양성의 문제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이는 곧 **차이와 분권의 문화, 공정한 문화 환경 구축에 대한 필연성을 더욱 요청**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다양성은 인류 생존을 위한 평화의 조건이자, 공동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문화정책의 목표가 되었다.**

2. 정책목표: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은 2001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를 계기로 세계는 서로 간의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킴으로서 인류의 창조적 다양성을 높이는데 함께 협력하게 되었다. UN은 2002년 12월 20일, 총회에서 매년 5월 21일을 '발전과 대화를 위한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 (World Day for Cultural Diversity for Dialogue and Development)'을 제정하였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UNESCO에서 2005년에 발표한 문화다양성 협약이 시발점이 되어, 인류가 추구해야 하는 보편적인 가치이자 인간의 기본 권리로 규정되었다(UNESCO, 2017). 이 협약에 따르면, 소수자와 다수자의 문화는 상호 동등하게 소통 및 존중되고 증진되어야 하며, 다양한 문화가 보존증진되는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류 세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2005년 협약에서 문화다양성을 위한 모니터링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문화거버넌스 체계 지원', '문화상품과 서비스를 균형적으로 공급하고 예술가와 문화전문가들의 이동성을 증진', '지속가능한 개발 체제로 문화통합', '인권과 기본적 자유 증진'으로 명시했다. 모니터링 분야로는 문화정책, 공공서비스 미디어, 디지털 한경, 시민사회와의 협력, 예술가와 문화전문가의 이동성,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공급, 조약과 협정, 국가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정책과 계획,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그램, 성평등, 예술적 자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핵심원칙은 정보 전달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참여과정이 투명하고 거버넌스 체제를 기반으로 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채택하고 실행, 국가의 정책이 보장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 표현의 창조와 배급을 위해 표현과 정보, 소통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에 대한 존중이 전제 조건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UN은 한국 문화다양성 수준에 대한 우려 표명과 정책 모니터링 강화 등에 관한 권고, 즉 기존의 문화다양성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업무나 사업에 관한 개선을 넘어 범정부적 차원의 협력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이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유네스코 본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문화다양성 국제기금(IFCD)출연을 권고하였다.

한국은 2010년에 비로소 전 세계에서 110번째 문화다양성 비준국이 되었다.

문화다양성을 한국 내에서 보호하고 증진함과 동시에 세계 여러 나라들과 전 인류의 관점에서 문화다양성 증진의 의지를 본격화하게 된 것이다.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는 '문화다양성 정책'이라는 개념 자체가 공유되거나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협약 비준국으로써 반드시 '문화다양성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문화다양성 정책은 창조성에 기인하는 문화적 표현과 문화정체성에 기인하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으로, 범주적으로는 문화생태계의 전 가치사슬(창소, 생산, 전파/ 유통, 접근, 향유)에 따라 산업적, 비산업적 영역을 포괄하고,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문화유산 개념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로써 다양한 문화정체성에 대한 존중과 공평한 표현, 개방적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문화다양성 실현을 위한 제도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였는데 이는 총 15조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 제 12691호(2014.5.28. 제정, 2014.11.29. 시행) 제 2조〉

국내에서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문화다양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해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데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그런데 이 법률을 잘 들여다보면, 전체적으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실무적인 행정 행위로 개념 정의와 책무,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 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 마련, 국민인식 제고 관련 활동(문화다양성의 날, 교육), 지원과 권한 위탁 근거 마련 등 제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문화다양성 정책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으로 법률적인 정비과 개정을 제기하고 있다. 법률 제정과 함께 문화체육부가 담당하는 문화다양성 정책 총괄 기능의 형식성과 취약성을 개선, 보완하고, **기존의 문화다양성 정책이 포괄하지 못했던 정책 과제들을 구체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문화다양성의 실현과 확산 도모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다양성을 위한 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대표사업으로 201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무지개다리

사업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무지개다리 사업은 지역사회의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 운영기관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107개 운영기관이 지역 문화다양성 기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7).

〈표 1〉 국내 문화다양성 지원사업(문화체육관광부, 2018)

활 동 명	사업목표	세 부 내 용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다양성 주체로 성장하기	문화다양성에 대해 이해하고 삶에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교육을 운영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올바른 문화다양성 인식을 갖도록 돕기 위해 양질의 커리큘럼을 개발하며 전문인력 연수를 통해 현장실무자의 역량강화
무지개다리 사업	문화다양성 의미 찾기	다양한 문화주체들 간의 문화소통 및 문화예술 교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문화주체로서의 자존감을 가질수 있도록 지원 이색적이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열린 시각과 창의력 증진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http;//www.cda.or.kr)	문화다양성 의미 나누기	문화다양성 아카이브(Cultural Diversity Archive)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관련 조사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적인 자원을 축적하고 유통하는 채널 국내 유일의 문화다양성 전문아카이브로서 다름의 이해와 소통이 가능하도록 돕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문화다양성 함께 즐기기	UN이 지정한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5월 21일)부터 일주일간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문화의 다름과 차이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해 국민이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다양성 주간을 운영

그러나 **아직까지 문화다양성의 본래적 가치와 지향점을 충분히 구현하기에는 문화정체성, 다문화정책 등의 특정 정책 사업에 국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간 한국사회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이 이주 노동자나 결혼이민자와 같은 제한적인 외국인 정책으로 특화되어 왔으며, 동화정책에서 다문화정책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에 해당하는 구성원에 대한 지원과 대상 특정적인 '복지'패러다임에 치우쳐져 있었다. 그러나 이른바, 이러한 접근의 다문화정책은

오히려 문화의 우열을 조장하고,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2018년 발표된 '문화정책 2030'은 문화다양성 정책의 대표적인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① 문화다양성 정책위상 강화와 법제 정비 ② 문화다양성 침해(혐오표현 등) 금지와 인식제고 ③ 문화정체성의 다양한 표현 보장 ④ 언어문화 다양성 실현 ⑤ 전통문화유산 보호와 현대화 ⑥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국내외 관광객 정책 마련 등이다. 이 중 문화정체성의 다양한 표현 보장을 살펴보면, '문화기본법'의 '문화권'의 개념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의'문화적 표현'과 '문화다양성' 개념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언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른 문화정체성의 차이로 인한 차별을 금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즉, 문화정체성을 표현하는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사회구성원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방향에도 한계가 존재했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정책적 개념이나 사업이 사회문화적 차별을 조장하거나 지극히 단면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개념과 범주에는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구별, 분류, 분리에 따른 정태적, 모자이크적 다문화정책을 넘어 **사회통합과 상호교류의 역동적 문화혼합 또는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의 관점에서 '문화다양성'을 재설계**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상성'의 위계구조를 수평화하는 전략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III. 문화다양성의 주요쟁점과 담론들

1.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수용성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오직 하나의 문화적 가치만 인정하는 동화주의나 단일 문화주의에 반대하는 개념으로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조현상, 2009). 다문화주의 이론가인 Taylor(1992)는 "문화적 다수 집단이 소수 집단을 동등한 가치를 가진 집단으로 인정하는 인정의 정치(the politics of recognition)"라고 정의하였다(이윤정, 2016 재인용).

Martiniello(2002)는 "일반적으로 인간사회의 다양성, 인구학적이고 문화적인 다양화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다문화주의는 정치이념 또는 정책과 관련된 개념으로 이해된다. 수많은 이민자들로 인해 이미 다문화 국가를 실현하고 있는 국가들의 다문화 정책을 보면, 기본적으로 소수자들의 문화적 권리를 존중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불평등을 없애려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 수용성(multicultural acceptability)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는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와 다른 인종 배경을 가진 사회집단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정도를 의미한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다문화 지향적 태도로서 자신의 문화만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개방적 사고를 갖는 것이다(이지영, 2013). 다문화수용성은 다양한 문화의 다름을 이해하고 편견 없는 태도를 보여주는 인지적 측면, 서로 편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며,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공감하는 정서적 측면, 그리고 이러한 다문화 상황에서 적절하게 상호 작용을 하는 행동적 측면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김미진, 2010). 더 나아가 다문화 수용성은 국적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할 보편적인 권리에 대한 승인을 포함하는 개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시민의 자질에 대한 태도로도 해석되고 있다(황정미, 2010).

2. 문화정체성과 문화적응

문화정체성(cultural identity)은 한 국가의 고유문화를 공유하며 자신을 그 집단의 일원으로 인식하여 동일시하는 것을 의미한다(정진경, 양계민, 2004). 또한 문화적응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집단의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와 사회환경에서 장기간의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양쪽 또는 한쪽 집단의 모든 변화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Berry(1990)는 '문화적응모형'을 통해 문화정체성이 문화적응의 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이주자들은 이주 초기에 문화정체성과 관련한 문제로 심리적인 갈등을 겪는데 자신의 본국 문화와 이주국의 문화 중에서 어떤 문화를 선택할 것인가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되며 각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모국 문화를 포기하고 주류사회와 관계를 유지

하는 경우는 동화 유형이며 모국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류사회와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은 통합유형이다. 특정한 문화나 환경에서 다른 문화와 환경으로의 이동과 같은 변화 속에서는 적절한 적응이 요구된다(김인숙, 조광문, 2017). 또한 개인의 적응양상은 단순하고 획일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발달적 상태와 상황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Berry, Kim, & Mok, 1987). 이와 관련하여 Berry와 Sam(1997)은 두 가지 기준을 통해 4가지 문화적응 유형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즉, 이주민들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함에 있어서는 원문화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문화적 유지(cultural maintenance)' 그리고 이주민들이 새로운 문화와 접촉하고 교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접촉과 참여(contact and participation)'이다. 이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분리(sepa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3. 상호문화성과 문화지능

문화다양성은 기후변화, 문화유산과 언어의 보존, 자원 활용 및 복지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 경제, 교육, 보건과도 연결고리를 맺고 있다. 따라서 문화다양성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영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보기는 어렵다. UNESCO 세계보고서(2009)에 따르면, 문화다양성의 주요영역은 크게 네 가지(언어, 교육, 커뮤니케이션과 문화콘텐츠, 창의성과 시장)로 구분된다. 이 중 창의성이 문화다양성의 기본 토대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문화다양성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인 뿐 아니라 집단적 차원에서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상호문화능력(intercultural competencies)이 중요하다. Roman(2009)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참조하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여섯 가지 요소 중'코드'가 포함된다. 발신인과 수신인이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공유하는 하나의 체계, 혹은 문법이 있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과 소통하려면 상대방의 문화가 지니는 가치체계를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몰이해, 오해, 소통 단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상호문화성은 문화를 창출하고 문화적 관계를 매개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라는 관점으로 시작하여, 한 문화권의 인간과 다른 문화권의 인간의 만남과 이해,

그리고 상호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개별문화의 특수성과 보편문화의 보편성의 상관성을 가리킨다(박인철, 2015). 상호문화주의에 기초한 문화다양성 교육은 문화적 통합과 동질성을 강조한 다문화주의가 간과할 수 있는 문화 내 다양성과 인간집단의 본질적 특성, 그리고 내적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다양성 교육의 개념적 특질은 다양한 문화 현상에 대한 인지적, 정의적, 실천적 역량을 함양하는 문화역량(cultural competency)과 복수적인 문화정체성(cultural identity)(이동성 외, 2013)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상호문화능력은 문화코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경영학자들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왜 특정한 개인이 더 효과적으로 성과를 내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해답을 '문화지능(cultural intelligence)'에서 찾았다. Earley(2007)는 문화지능을 "문화적 차이를 인지하고 적응해내는 능력, 즉,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문화적 갈등 없이 어울리거나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문화지능의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문화적 지식과 사고방식을 포함하는 '문화전략적 사고', 인내력과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려는 '동기'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문화지능이 높은 사람은 바로 이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전략적 사고는 다른 문화권 사람들의 행동 양식과 이유를 이해할 때 쓰는 일반적 사고기법과 관련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른 문화권 사람들의 신념 및 가치체계 뿐만 아니라 행동에 있어서의 절차와 관례까지 포착하고 이해한다. 문화지능의 동기는 핵심가치와 선호도에 따라 부여되며, 이를 통해 목적과 의도를 분명하게 한다. 문화지능의 행위는 다른 문화와의 접촉에서 적절하게 관찰, 인식, 조절,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이방인을 처음 만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특성이 바로 그들의 외양과 행동, 대화라는 점에서 행위 역시 문화지능의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4. 문화역량과 문화다양성 역량

문화역량 연구 중 대표적인 것은 독일의 연방 문화 청소년 교육 협회(BKJ)와 독일 연방 교육 연구부(BMBF), 유럽위원회의 2003년 국제회의인 "Developing

Competencies in Cultural Education"이다. 이는 OECD의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독일의 연방문화청소년교육협회(BKJ)의 "Key Competencies through Cultural Education –Evaluating and Certifying Educational Effects of Cultural Education" 프로젝트와 함께 조직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청소년들이 예술과 문화 환경 속에서의 직접 활동을 하고 오랜 시간을 예술, 문화를 접하면서 어떤 역량을 갖추게 되었는지 조사하여 이런 역량을 정의하고 분류하는 것이었다. 이는 문화교육 활동의 교육적 영향을 측정하고 증명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이병준, 2013). OECD의 DeSeCo 프로젝트에서는 문화와 예술을 사회적 영역(social field)과 도구(tool)로 보고 있으며, 문화역량과 관련하여 영역으로써의 문화와 도구로써의 예술 문화로 범주화하고 있다(이병준, 2013). 또한'도구(tool)'라는 개념을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영역으로서의 문화 개념을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개념과 연관을 지어 문화역량을 살펴보자. 협의적 관점에서 보면, 미술과 문학, 춤, 드라마, 연극, 음악, 미디어를 도구로 활용하여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광의적 의미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문화적 감수성과 문화적 문해력이 시민의 역량으로 해석된다(강인애, 2012; 이병준, 박응희,한현우, 2010). 문화다양성 역량에 대한 정의는 문화다양성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필수적 능력, 역량이라는 점에서 정의되고 있는데, 유네스코(2006)와 Fantini(2007) '문화간 대화능력', Deardorff(2006)의 '문화간 역량', '문화다양성 역량'이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의 연구보고서 「문화다양성 역량 증진을 위한 교수학습방안」 에서는 문화다양성 역량을 지식적 측면, 가치 및 태도의 측면, 기능적 측면으로 나누고 이를 실천하는 종합적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세부적 역량으로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행동적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장의선, 이소영, 강민경, 한건수, 2016).

OECD의 DeSeCo 핵심역량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 의사소통능력과 협업능력, 비판적 그리고 성찰적 사고, 스스로 문제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기통제 및 조절능력 등의 역량이 요구된다. 읽기, 셈하

기, 쓰기를 기반으로 한 지식전달 중심교육으로부터 창의성, 인성, 협업능력, 의사소통능력을 수반한 역량함양 중심의 교육과 문제해결능력이 강조되고 있다(김지영, 김은혜, 홍애령, 2019). DeSeCo의 후속적인 작업인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는 변화 환경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가치 창조, 책임감, 딜레마 대처 등을 포함하는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까지 포함하고 있다(김지영, 김은혜, 홍애령,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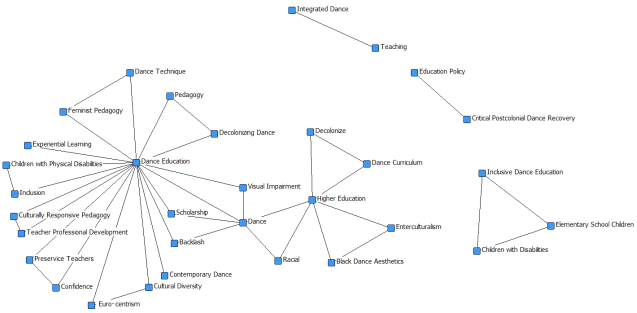
IV. 문화다양성 무용연구의 동향

1.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국내외 무용연구의 지적 구조

최근 국내외 무용교육에서의 주요 화두 역시 문화다양성 역량을 담지할 수 있는 무용교육의 실천이다. 국내외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많은 학자들의 연구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외 무용교육 연구에서는 대표적으로 최근 10년간 'Research in Dance Education' 54편, 'Journal of Dance Education' 33편에 수록된 무용연구 총 87편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텍스트마이닝 방법을 활용한 '문화다양성' 연구동향 및 지적 구조를 분석하였다. '문화다양성' 핵심어로 정제된 연구는 최종적으로 RDA 15편, JDE 6편으로 총 21편의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무용교육'과 '다양성'에 대해 총 89개의 키워드(중복 포함), 69개의 키워드(중복 제외)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표 2〉 문화다양성 무용교육 연구의 핵심어 연결망 변수 순위

연결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키워드	값	키워드	값	키워드	값
Dance Education	18	Dance Education	20.33	Dance Education	226.5
Dance	6	Dance	15	Dance	109.5
Higher Education	6	Higher Education	12.66	Higher Education	84
Backlash	2	Backlash	12.33	Backlash	0
Black Dance Aesthetics	2	Scholarship	12.33	Scholarship	0



〈그림 1〉 문화다양성 무용연구(국외) 핵심어 의미연결망

문화다양성 무용교육 관련 국내 연구는 문화다양성 교육에서 무용교육의 중요성 및 요구도, 교육프로그램 방법론 및 개발, 상호문화적 관점의 담론, 심리, 치료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연구들로 논의되고 있었다. 문화다양성 교육에서 무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무용교육의 요구도를 조사한 연구(김현남, 2015; 나경아, 박현정, 오유진, 2012; 안병주, 원은정, 2009; 유미희, 2014; 전은진, 2014; 최경희, 2011; 황지유, 2015; 홍애령, 남진희, 2018)는 문화다양성 교육에서 무용교육의 중요성과 요구도, 교육 정책적인 면에서의 실천과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첫째, 문화다양성 교육에서 무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공통적인 견해는 무용교육을 통한 교육대상의 사회적, 문화적, 정서적 발달의 긍정적인 변화이다. 둘째, 무용교육의 요구도는 다문화 환경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에 맞는 신체움직임의 필요성, 춤을 통한 문화 이해 교류, 정서적 표출의 기회 등의 양상을 보인다. 셋째, 교육 정책적인 면에서는 교육환경, 교육 제도에 대한 개선점이 논의되고 있었다.

국내외 문화다양성 무용연구에서 제시하는 핵심어를 종합 해 본 결과, 문화다양성을 포용하는 무용교육의 목표 역량으로 자기이해(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인지된 자유감), 타자존중(인성, 개방성, 존중감), 공감소통능력(대인관계기술, 협업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주도적 사고, 해결방법의 다양성, 위기대처능력), 문화적 정체성(다문화수용성, 문화적응역량, 문화지능), 예술적 소양(미적감수성, 창의적 표현력)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2. 내용분석을 통한 선행연구들의 시사점

가. 문화다양성 무용교육 프로그램

문화다양성 무용교육 프로그램 분석 또는 개발에 관한 연구(김영미, 이종길, 홍혜전, 2014; 김현남, 2015; 나경아, 오유진, 박현정, 2012; 박정선, 2017; 서예원, 2014; 신하라, 2017; 유미희, 2014; 이정연, 2008; 정고운, 이정연, 2017; 정수정, 김영식 2015; 최윤영, 2010; Risner, & Stinson, 2010; Robinson, & Domenici, 2010)는 다문화 무용교육이 민속춤 동작 익히기에 국한되어 기능적 측면에 치중한 교육으로 문화다양성을 실천하기에는 그 범위가 매우 좁다는 관점에서 시작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구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은 민속무용의 내용 확장, 토론학습 및 조사학습 등 구체적인 활동과 연계한 민속무용, 창작무용, 즉흥무용, 놀이를 포함한 통합프로그램, 특정 무용가의 삶과 대표작품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구성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은 교과 간의 통합교육과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주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문화다양성 무용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과 인문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의 적용 결과로는 학습자가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언어, 인종, 성, 사회계급 등 문화의 여러 영역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및 정체성, 인권, 세계 시민성의 가치를 습득하는 등 신체적, 심리 정서적, 사회 문화적 영역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문화다양성 역량의 통합적 관점과 프로그램에 관한 논의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실천과 방법론: 담론으로부터 확장된 무용의 실천성

많은 연구자들은 문화다양성의 담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에 그치지 않고, 이 담론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에 관한 실천적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서예원(2014)은 춤만들기, 춤추기, 춤감상하기, 춤나누기와 즉흥, 시청각 자료의 활용, 토의 및 토론 학습 등 문화다양성을 무용교육에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관한 무용교수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최경희(2011)는'홈리스 발레교육', 소년원 학교 예술치유교육, 커뮤니티 댄스 워크숍 '엄마와 딸'등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무용교육과 작품 활동에서 다양한 영역

과 대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무용교육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문화다양성 무용교육의 실천영역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첫째, 다문화주의의 맥락에서는 무용을 통해 타문화에 대한 공감 능력 증진 및 차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이끌어 가고 있었다. 둘째, 문화 다양성 무용교육의 실천성은 완성된 작품과 형태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과정에 함께 참여하거나 작품을 감상하고 함께 향유하는 과정을 통해 무용을 통한 철학적 사유, 지식, 문화, 감성,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치기반의 과정중심 환경을 추구하고 있다. 셋째, 다양한 교육대상이 참여할 수 있는 보다 개방적인 방법론을 찾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 문화다양성 무용교육의 전제 '신체적 경험'

문화다양성 무용교육의 핵심적 역할은 신체적 경험이다. 따라서 신체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개인이 문화적 상대주의를 인지하고 문화적 역량과 문화적 정체성을 습득하기 위해 수반 되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은'신체'에 대한 이해와'감정'에 대한 인지이다. 신체는 문화를 통해 형성된 습관 및 자연적, 보편적 성격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써 문화와 문화 간을 매개하는 근원적 바탕의 역할을 하며, 감정은 보다 더 개방적인 상호문화적 태도로 진입할 수 있는 포용과 인정의 성격을 포함(박인철, 2015)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체적 경험은 우리 자신의 삶과 타인에 대한 재결합을 통해 냉담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인간성 회복이 가능하게 함을 인식시켜 준다(Risner & Stinson, 2010). 여기에서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의 신체에 대한 다양한 해석, 하나의 문화로써 신체, 자아 인식 및 자아 정체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신체 등 신체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는 다양한 무용교육의 방법을 도출하는 방법을 고안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상호문화주의를 목표로 하는 문화적 다양성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신체적 경험 안에서 문화와 문화 간의 매개, 감정과 분리시킬 수 없는 '신체'에서 실마리를 찾고, '체득'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전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라. 타자와의 소통과 문화적 공존

무용교육의 다양한 표현방식을 통해 그 안에 내재된 문화적 의미와 가치들을 공유할 수 있다. 인종, 지역, 언어의 장벽을 넘어 신체를 통해서 타자와 소통하

고 공존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는 점,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철학적 고찰과 문화적인 경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화다양성의 맥락에서 무용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김재은, 2007; 최윤영, 2011). 무용을 통한 문화다양성 교육의 목표로 서예원(2014)은'움직임 표현 과정에서 인지, 정서, 감각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문화적 감수성을 기르고 문화적 공존을 실천'을 제시하면서, 구체적 목표로 자신과 다른 표상적 의사소통과 문화적 관습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타인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기르기, 문화에 대한 감수성과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 문화적 공존을 실천하기를 제시하였다. 그는 서로 다르고 복잡한 타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문화다양성 무용교육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허가영(2016)은 차이점이 아닌 공통점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이민자 가정 자녀와 일반가정의 학생들이 다양한 전통무용을 통해 상호소통하기, 모두를 위한 무용교육의 확대, 상호문화교육을 적용한 커뮤니티 댄스프로그램 시행 등 상호문화교육을 적용한 무용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홍애령, 남진희(2018)는 문화다양성 논의에 대한 국제적, 국내적 근거들을 살펴봄으로써 공적인 차원에서 논의된 문화다양성과 사회통합의 개념을 도입하여 학교무용을 위한 교육목표와 가치체계를 제시하였다.

마. 젠더 고정관념 벗어나기

문화적 고정관념은 특정한 집단이 권력과 지배를 통하여 타자들을 소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이동성, 주재홍, 김영천, 2013). 고정관념은 문화를 고정적인 것으로 보고 범주화시켜, 문화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낳을 뿐 아니라, 상호문화적 대화의 저해요소가 된다. 특히, 사회적 맥락 속에서 신체는 장애, 성별, 인종, 사회적 표식 등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 이는 문화적 정체성에 의해 설명되어질 수 있으며, 동시에 고정적인 인식과 관념에 의해 소외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Stinson(2005)의 연구에서는 사회 저변에 깔린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무용교육에도 투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무용교육에서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침묵과 순응에 주안점을 두고, 학생들이 배운 것을 그대로 답습하게 만드는 주입식 교육방식,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창작 수업,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진 학부모의 인식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자들이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교육학적 측면에서 무용교육자들이 반성적인 태도로 자기 교수관점과 행위를 개선하고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맥락과 고정관념을 고려하는 태도에 대한 중요성은 남성 무용수와 관련된 무용교육 이슈(Risner, 2007; Risner & Stinson, 2010)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무용교육 장면에서도 이성애자에 대한 옹호, 성적 가정을 만들게 된다고 제기하였다. 성에 특정 지워지지 않는 움직임, 성별을 반영한 신체, 성의 사회적 구성, 그리고 성 정체성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고정관념과 고착화된 인식은 무용에 대한 지배적인 가정, 즉 전형적인 아름다움, 민첩성, 힘 그리고 미에 대한 기준이 각기 다른 역량을 지닌 다양한 무용수들에게 맞추어져 있을 때, 그 조차도 이 기준에 가까운 신체를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우선시하는 헤게모니적 경향을 갖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바. 대학 무용교육 시스템을 향한 비판

오랜 고정관념과 서양 중심의 위계적이고 분리적인 무용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은 Risner와 Stinson(2010)의 연구에서도 잘 드러난다. 단일한 교육과정 로드맵은 불공평한 입시 제도와 교육환경을 만들게 된다는 것, 대학 교수진 및 프로그램이 바뀌지 않는 대학 교육환경에 대해 지적하였다. 또한 서양 중심 대학 무용커리큘럼(현대무용)은 다른 문화의 무용을 배척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비판하였다. 여러 다른 무용 형식을 테크닉, 안무, 교육학, 역사 등 무용교과의 모든 과정에 통합시키는 상호문화적 관점의 '통합(integration)'을 강조하였다. 박정선(2017)의 대학 무용학과 교과과정 내 다문화 무용 교과목 개발에 관한 연구로 무용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 다양성 연구로는 유일하다. 그는 미국의 무용교육시스템의 영향을 받은 현 한국 대학 무용교육의 커리큘럼에서 문화다양성 교과를 찾아볼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대안으로 학생들에게 그들이 지닌 가정과 편견에 대해 도전하기를 독려하고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체성, 문화적 다양성, 공감, 글로벌 시민의식과 같은 이슈를 제시하여 학생들만의 교수법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적 활동을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사회적 맥락 속에서 고착된 관념들이 무용현상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무용교

육 상황에서는 교수환경 및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에 대한 반성적 시각이 필요하다.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 문화적 이슈를 포괄한 다양한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미래 무용교수의 중심이 될 무용 전공자를 위한 문화다양성 교육의 전문성은 부재하다. 이에 무용교육의 목표와 문화다양성 교육의 목표가 상통하는 지점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이를 반영한 실천이 요구된다. 특히, 문화다양성 무용교육을 위하여 대학 수준의 커리큘럼과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실행이 요구된다.

V. 나가며: 정책 및 간학제적 관점에서의 성찰

문화다양성을 실현하는 문화생태계를 목표로 현재 한국은 굉장히 적극적인 정책을 선언한 상태이다. 아무리 잘 완비된 법과 제도, 시스템 모두 이상적인 교과서를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사람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도 실현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 문화다양성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문화다양성을 포용하는 무용교육의 다양한 실천성이야말로 우리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부족하고 두서없는 발제를 마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성찰적 관점을 제시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다양성을 목표로 하는 문화정책의 흐름과 문화생태계의 변화에 무용교육의 적극적인 관여와 민감하고 새로운 접근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다문화'라는 명칭으로 이루어져 왔던 많은 정책과 실천들에 대한 반성적 시각으로부터 상이한 집단이나 문화 사이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상호문화적 대화와 소통을 증진하는 문화다양성 교육으로 확대되어야 한다(서예원, 2014). 문화적 표현 기회 확대와 접근성 증진을 위해 장애, 어르신 문화, 북한 이탈주민, 재외동포 등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고 참여자간 교류, 문화적 표현과 체험 기회에 대한 제고가 있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생각과 표현의 차이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양함이 공존하는 풍요로운 사회를 함께 이루는 것이 문화다양성의 꿈이다.

둘째, 문화다양성은 차이를 대하는 태도, 즉 차이를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고 이를 즐길 줄 아는 수용의 마음과 태도를 키우는 것이다. 실천적 측면에서 다문

화 무용교육에 치우쳐져 있던 문화다양성 교육으로부터 확장된 접근이 요구된다. 문화다양성을 담지하는 무용교육은 문화정체성, 상호문화적 감수성과 문화역량 등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 더 나아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 현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사회적 차별, 혐오, 복지나 시혜, 치료 관점을 긍정적이고 보편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고민하며 개인, 집단 간의 문화와 정체성을 존중하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교육의 지향점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 교육, 경영, 정책 등 간학제적(inter-disciplinary) 관점에서 상호교류의 역동적인 문화혼합과 상호문화주의 관점을 확산하는 무용학 연구의 적극성이 필요하다. 다문화 담론으로부터 확장된 실천성, 고정된 관념과 인식에 구애받지 않고 기존의 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의 중요성, 그리고 국가와 민족적 다문화주의로부터 신체, 젠더,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문화적 이슈 등 무용학 안에서 확장된 상호문화성의 관점을 제안하는 학술적 행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김재은(2007).『창의성과 무용교육』. 한학문화사.

박인철(2015).『현상학과 상호문화성』. 서울: 아카넷.

홍종열(2014).『창조경제란 무엇인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Berry, J. W.(2003).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In K. M. Chun, P. B. Organista, & G. Marin.(Eds). Acculturation: Advances in theory, measurement, and applied research,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Earley, C.(2005).『문화지능』. 박수철(역). 서울: 영림카디널. 2007.

Roman, J. & Morris(1956).『언어의 토대: 구조기능주의 입문』. 박여성(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9.

고경희(2011). 다문화적 상호이해를 위한 무용교육 제고.『한국무용연구』, 29(3): 203-228.

김미진(2010). 아동의 다문화수용성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영미, 이종길, 홍혜전(2014). 다문화아동의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전래동요 움직임 놀이' 체험 분석.『한국무용과학회지』, 31(1): 1-17.

김인숙, 조광문(2017).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참나다례와 앱의 융합 프로그램.『한국융합학회논문지』, 8(12): 445-450.

김지영(2017). 무용콘텐츠 개발을 위한 PBL과 캡스톤디자인.『2017 한국무용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김지영, 김은혜, 홍애령(2019). 문제중심학습(PBL)의 무용수업을 위한 프로토타입 개발: 미래사회 대비 대학무용의 변혁적 교육.『한국무용학회지』, 19(10): 29-47.

김태원(2012). 다문화사회의 통합을 위한 패러다임으로서의 유럽 상호문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탐색.『유럽사회문화』, 9(0): 179-213.

김현남(2012). 대안적 다문화 무용교육의 가능성 고찰을 위한 기초연구.『한국스포츠학회』, 10(4): 47-54.

김현남(2015).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을 위한 창작무용 교육모형 개발.『무

용예술학연구』, 52(1): 15-34.
나경아(2011). 다문화 아동, 청소년들의 무용교육 요구도 조사연구.『무용역사기록학』, 21(0): 17-34.
나경아, 박현정, 오유진(2012).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문화정체성 형성을 위한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한국무용기록학회지』, 24: 19-38.
박정선(2017). 대학교 무용학과 교과과정 내 다문화 무용 교과목 개발에 관한 연구.『무용예술학연구』, 64: 1-24.
변인숙(2009). 초등무용교육을 통한 다문화 가정 아동의 표현활동 및 심리활동에 관한 고찰.『한국사회체육학회지』, 0(36): 911-920.
서예원(2014). 초등무용에서의 문화다양성 교육의 가능성.『한국초등체육학회지』, 20(2): 13-22.
신하라(2017). 즉흥무용을 통한 다문화 무용교육의 개선안 연구.『한국무용교육학회지』, 28(1): 81-99.
안병주, 원은정(2009). 다문화시대에 따른 무용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한국사회체육학회지』, 37(1): 69-80.
양주연(2010). 창작무용학습을 통한 다문화가정 어린이의 사회성 변화.『한국무용교육학회지』, 21(1): 25-46.
유미희(2012). 다문화 수업과 무용수업에 따른 미국대학 학생의 다문화 인식의 차이.『한국여성체육학회지』, 26(1): 67-79.
유미희(2014). 초중등 체육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무용교육내용 분석.『무용예술학연구』, 46(1): 47-66.
유미희(2014). 최승희 무용예술의 다문화무용교육표준에 관한 연구.『무용예술학연구』, 51(6): 69-86.
유미희(2015). 최승희 무용예술을 활용한 초등학교 다문화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무용예술학연구』, 54(3): 129-145.
유미희(2016). 최승희 무용예술을 활용한 중,고등학교 다문화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무용예술학연구』, 61(4): 29-54.
이동성, 주재홍, 김영천(2013). 문화다양성 교육의 개념적 특질 및 이론적 배경 고찰.『다문화교육연구』, 6(1): 51-72.
이병준(2013). 진로역량으로서의 문화예술역량.『KAAE 한국예술교육학

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1-38.
이병준, 박응희, 한현우(2010). 공무원 다문화역량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를 위한 요구 분석.『문화예술교육연구』, 5(1): 39-65.
이윤정(2016). 학령기 한국어 학습자의 다문화주의 이해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분석 및 개발 방안 연구.『다문화와 인간』, 5(2): 3-34.
이정연(2008). 다문화 사회 속의 초등무용교육: 변화를 위한 모색:포크댄스(Folk dance)를 중심으로.『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6(3): 181-192.
이지영(2013). 중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임철일, 김선희, 김성욱(2014).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및 문화예술 기반 교육방법 탐색.『다문화교육연구』, 7(2): 27-57.
전은진(2014). 다문화 무용교육의 현황과 과제 연구.『한국무용교육학회지』, 25(1): 41-59.
정고운, 이정연(2017). 아시아 민속무용을 활용한 다문화 통합교육 프로그램 연구.『한국초등교육』, 28(4): 107-123.
정수정, 김영식(2015). 민속표현 활동을 적용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의 다문화 수용 태도 및 인식 변화에 미치는 효과.『한국초등체육학회지』, 21(3): 115-126.
정진경, 양계민(2004). 문화적응 이론의 전개와 현황.『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1): 101-136.
정희자(2016). 무용교육을 통한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자존감 향상에 관한 연구.『예술교육연구』, 14(1): 97-118.
최경희(2011). 사회적 소통으로서 무용교육의 힘.『한국예술연구』, (3): 85-109.
최윤영(2010). 다문화 교육에 있어서 무용교육의 적용 방안 고찰.『대한무용학회 논문집』, 63(63): 261-282.
허가영(2016). 21세기 다문화사회의 무용교육: 다문화교육에서 상호문화교육으로.『무용역사기록학』, 43(0): 143-173.
홍애령, 남진희(2018). 문화다양성과 사회통합을 위한 학교무용의 가치체

계와 교육목표 탐색.『한국체육학회지』, 57(2): 399-411.
황경숙(2015). 다문화를 통한 초등무용교육 패러다임의 구축.『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23(1): 137-153.
황정미(2010).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분석: 새로운 성원권의 정치학 관점에서.『아세아연구』, 53(4): 152-184.
황지유(2015). 무용철학: 다문화를 통한 초등무용교육 패러다임의 구축.『움직임의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23(1): 137-153.
Berry, J. W.(1990). Psychology of acculturation in cross-cultural perspectives. *In Proceedings of the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 201-234.
Berry, J. W. & Sam, D.(1997). Acculturation and adaption.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 291-326.
Deardorff, D. K.(2006). Identification and assessment of intercultural competence as a student outcome of internationalization. *Journal of Studies in Intercultural Education*, 10: 241-266.
Risner, D.(2007). Rehearsing masculinity: Challenging the 'boy code' in dance education. *Research in Dance Education*, 8(2): 139-153.
Risner, D. & Stinson, S. W.(2010). Moving social justice: Challenges, fears and possibilities in dance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and the Arts*, 11(6). Retrieved [date] from <http://www.ijea.org/v11n6/, 2019. 5. 14.>.
Robinson, D. & Domenici, E.(2010). From inclusion to integration: Intercultural dialogue and contemporary university dance education. *Research in Dance Education*, 11(3): 213-221.
Stinson, S. W.(2005). The hidden curriculum of gender in dance education. *Journal of Dance Education*, 5(2): 51-57.
강인애(2012). 문화기반시설 담당자의 문화다양성 역량에 대한 소고. 2012 제1회 문화 다양성교육 심포지엄 자료집.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2015).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 문화예술정책백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엄한진(2011). 다문화주의를 넘어 상호문화주의로. 중대신문사 <http://news.cauon.net/news/articleView.html?idxno=20691/, 2019. 5. 14.>.
장의선, 이소영, 강민경, 한건수(2016). 문화 다양성 역량 증진을 위한 교수 학습방안 (연구보고 RRI 2016-3).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Berry, J. W., Kim, U. & Mok, D.(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 491-511.
Fantini, A. E.(2007). Explor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petence.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Global Service Institute.
UNESCO(2006). Guidelines on International Education. UNESCO World Report.
UNESCO(2017). Re|shaping cultural policies: advancing creativity for development. UNESCO World Report.



연구 포스터 발표

Practice-based Dance Research
- Space Harmony를 적용한 안무노트「Ping Pong」 -

김 수 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무용학과 박사과정

본 연구자는 '택배회사 파업'이라는 사회현상을 목격하며, 이 사건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고찰하기 위해 실기를 기반으로 한 무용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인 안무노트「ping pong」은 공을 서로 쳐내는 탁구의 움직임에서 착안하여, 사회 내에서 여러 이익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소통을 가장한 밀쳐내기 행위를 탁구 테크닉을 통해 드러내었다.

움직임 구성 연구는 라반의 스페이스 하모니 이론을 바탕으로 무용수의 움직임 공간 사용에 초점을 두고 움직임 나열이 아닌 공간이 주는 의미를 생성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스페이스 하모니의'대각적 스케일'개념을 움직임 언어로써 활용하였다. 대각적 교차축들을 따라 생기는 이차원적인 일련의 움직임 경로와 부합하는 탁구의 스매싱, 백핸드, 핸들링 기술이 말하기 방식으로 드러난다. 결과적으로 특정 사건에서 발견한 여러 명의 엇갈린 이해관계가 라반의 움직임 이론을 중심으로 한 실기 기반 무용연구 과정을 통해 노출된다.

키워드: 실기 기반 무용연구, 안무노트, 라반, 스페이스 하모니, 스케일

무용경영(Dance Management)의 전문적 정체성 형성과정 탐색
- 다중근거이론 접근(Multi-Grounded Theory Approach) -

김은혜, 이지영, 이현주, 김지영
상명대학교

이 연구의 목적은 실전척, 학문적 영역에서 무용경영의 전문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 및 맥락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다중근거이론 접근을 활용되었으며, 전문성을 지닌 참여자 10명을 선정하였다. 개방형 설문과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절차를 거쳐 분석하였다. 첫째, 인과적 조건은 중심현상의 발생하는 원인을 의미하며 무용공연 관객개발을 위한 전략, 학교무용교육을 위한 제도개혁, 문화예술교육정책, 대학 무용학과의 현 위치 및 발전방향 개념이 제시되었다. 둘째, 맥락적 조건은 중심현상에 대한 간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공공정책, 인접 학문의 영향, 4차 산업혁명, 소셜미디어의 영향 개념이 도출되었다. 셋째, 무용 경영의 전문적 정체성이라는 중심현상을 도출되었다. 넷째, 중재적 조건은 중심현상의 강도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무용 공연의 얇은 관객층, 무형상품으로서의 무용공연의 한계, 예술소양 및 교육중심의 무용전공교육, 무용학의 학문적 폐쇄성 개념이 도출되었다. 다섯째, 상호작용전략은 중심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반응으로, 간학제적 접근, 무용 분야 융·복합 창업 및 창직 활성화, 경영학 관점의 대학무용학과의 전문 교육, 무용을 통한 사회적 책임활동, 공유가치창출 등의 개념이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무용 비즈니스 및 고용환경, 무용 관련 정책 및 제도, 무용학의 학문적 독자성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키워드: 무용경영, 다중근거이론, 전문적 정체성, 학문적 정체성, 대학무용교육

음양사상의 순환성을 기반으로 한 무용창작작품 「생생지도(生生之道)」에 관한 연구

남 선 희
중앙대학교 대학원 공연예술학과 박사과정

본 논문은 음양사상의 순환성을 기반으로 한 무용창작작품 「생생지도(生生之道)」에 관한 연구로 사상의 상관성 및 타당성을 밝히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작품은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인 음과 양, 그 합일로써 나는 발화하고 발열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이를 한국적 춤사위로 구현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이며 라반 움직임 분석의 에포트 이론을 분석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작품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작품의 주제 및 내용적 측면에서 자아를 구성하는 내·외면의 합일을 통해 본질을 발견하였다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의상 및 오브제로 백색의 도포와 거울을 사용하여 조화미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였다. 음악 및 장면구성에서 각 장면이 A(A')B(B')의 작곡 형식으로 구성되어 상반된 질감의 에포트가 나타났고, 움직임 및 이동경로에서 무용수는 순차적으로 좌립보주의 형태를 보였으며 이동경로를 통해 순환성이 상징적으로 드러났다.

무용창작작품 「생생지도」는 자아의 본질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하여 조화미를 도출하는 과정을 다루었다. 이는 동양의 전통철학인 음양사상을 기반으로 현대적인 창작화 작업을 시도한 것으로 조화의 미가 필요한 현대사회에의 반향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키워드: 무용창작작품, 생생지도, 음양사상, 순환성, 조화미

무용전공자의 집단 따돌림 현상 극복사례 분석

박 문 성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본 연구는 무용전공자의 집단 따돌림 현상 극복사례 분석하는데 있었다. 무용전공자들의 집단 따돌림 경험이 있는 3명의 무용강사들은 유목적표집한 후 질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무용전공자의 집단 따돌림 현상 극복사례 분석으로는 집단 따돌림의 환경, 극복사례 2가지로 구분되었다.

첫째, 인문계 학교 안에서 무용전공자는 외모·복장이 화려하고 예쁘다는 원인으로 인문계 학생들이 무용전공자에 대한 이질감을 느끼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인문계 남학교에서는 레슨으로 인하여 운동하는데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으며, 예술계 학급 안에서 같은 전공을 함으로써 무용실력 차이에 대한 원인으로 같은 무용전공자들 사이에서 시기· 질투가 발생되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연구자 A는 따돌림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고통 받고 힘들었던 일들을 무용을 함으로써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알 수 있었다. 연구자 B는 자신은 무용으로 인해,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성격이 바뀌어졌다고 알 수 있었으며, 연구자 C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마음의 치유가 발생되었다고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의 사례를 통하여 무용전공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집단 따돌림의 환경과 무용을 통한 극복사례에 대해 알 수 있었었다.

키워드: 집단따돌림, 따돌림, 왕따, 무용, 극복

필라테스 운동이 무용수의 허리 통증 자각에 미치는 영향

이 소 라
충남대학교 강사

본 연구는 허리 통증으로 인해 공연활동에 지장을 받는 무용수들에게 단기간 필라테스 운동이 통증감소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운동 프로그램은 리포머 운동 4가지, 매트웍 운동 중 복부운동 4가지, 전신 운동을 할 수 있는 동작 1가지로 구성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는 연습도중 상해로 인해 허리 통증을 느끼는 성인남성 2명으로 선정하고 주 3회씩 4주 동안, 총 12회의 필라테스 운동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론 중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참여관찰, 심층면담, 문헌조사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와 같이 수집된 자료는 참여자가 느끼는 필라테스 운동에 대한 생각과 통증 및 기량변화에 대해 기술, 분석, 해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필라테스 운동은 척추안정화 근육인 코어근육 발달에 효과적이므로 무용수의 허리통증 완화 및 예방에 있어 보조운동 역할로서의 도움이 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처럼 필라테스 운동은 무용수의 재활운동 및 기량향상에 효과적인 영향을 주는 동시에 긍정적 심리효과를 도우며 무용수의 신체를 강화하는 보조운동으로도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키워드: 필라테스, 허리통증, 운동재활, 코어근육, 자세교정

무용교육학 연구동향 및 지식구조
– 텍스트마이닝 및 의미연결망 분석 –

이지영, 박제인, 최진웅, 김지영
상명대학교

이 연구는 텍스트마이닝 및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하여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주제의 핵심어와 네트워크 지식구조를 확인함으써 무용교육학 연구의 흐름과 동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무용교육에 대표적 국제학술지의 최근 10년간 무용교육 연구 총 87편이 수집되었으며, 그 중 'Diversity'로 검색된 논문 21편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첫째, 무용교육 연구동향에 관한 텍스트마이닝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무용교육 연구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특정 토픽으로는 'Dance Education', 'Dance', 'Higher Education', 'Education', 'Pedagogy'등이 도출되었다. 둘째, 의미연결망 분석을 실시한 결과, 'Dance Education', 'Dance', 'Higher Education', 'Backlash', 'Black Dance Aesthetics'에서 노드간의 연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최근 들어 무용교육 연구에서 신체, 젠더, 인종, 문화, 개인의 차이와 사회적 통합, 공존 등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주제들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키워드: 무용교육, 연구동향, 핵심어 연결망, 지식구조, 텍스트마이닝

치매노인을 위한 무용교육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윤정옥, 박정주, 황 현, 김지영
상명대학교

이 연구는 치매노인을 위한 무용교육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를 분석하기 위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순 신체활동과 복합예술이 융합된 무용교육적 맥락의 신체활동이 치매노인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크기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홀리스틱 관점의 무용교육이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절변인을 활용하여 단순 신체활동과 무용교육적 맥락의 신체활동의 효과크기 차이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메타분석 결과, 단순 신체활동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크기는 ES=.395로 나타났으며, 무용교육적 맥락의 신체활동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크기는 ES=.498로 도출되었다. 단순 신체활동과 복합예술이 융합된 무용교육적 맥락의 신체활동에서의 인지기능이 갖는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무용교육적 맥락의 신체활동에서 더 높은 효과 크기를 확인함에 따라 무용교육이 단순 신체활동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간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 신체활동에서 과제수행의 인지적 부하량이 떨어짐에 비해 무용교육은 동작의 암기, 공간의 인식, 리듬과 움직임의 융합 등 인지적 부하량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치매노인의 인지기능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 무용교육, 신체활동, 인지기능, 메타분석, 치매, 노인

유아의 댄스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LMA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 재 임
순천향대학교 건강과학대학원 강사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댄스 리터러시 함양을 목표로 LMA를 활용한 무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서 유아의 발달적 특성, LMA 이론 등과 관련된 문헌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의 목표, 영역, 내용,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로 프로그램을 구체화하였다. 프로그램의 적용을 위해서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총 16회의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프로그램 적용 전·후에 지각운동능력검사, 창의적 신체표현능력검사, 공간능력검사, 사회적 능력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자가 작성한 수업일지와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와의 면담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LMA 무용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의 무용교육표준, 미국의 국가핵심무용교육표준 및 뉴질랜드의 무용교육과정, 스미스-오타드의 미드웨이 모형 및 누리과정을 토대로 구성하고 LMA를 적용한 것으로서, 유아의 댄스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으로 기능할 수 있다. 둘째, 본 프로그램은 댄스 리터러시를 구성하는 요소인 지각운동능력, 창의적 신체표현능력, 공간능력, 사회적 능력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키워드: 댄스 리터러시, 무용교육, 유아무용교육, LMA 프로그램, 무용교육표준

사회초년생을 위한 커뮤니티(Community)댄스로서의 즉흥무용 프로그램 개발
- 루트번스타인의 13가지 생각도구를 중심으로 -

정 현 미
중앙대학교 강사

본 연구는 13가지 생각도구가 적용된 사회 초년생 대상의 커뮤니티 댄스로서의 즉흥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사회초년생 대상의 커뮤니티 댄스로서의 즉흥무용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목표는 ① 즉흥무용의 과정을 통해 예술창작의 즐거움을 경험, ② 신체 표현의 즐거움을 경험, ③ 13가지 생각도구를 적용한 다양한 아이디어의 창출, ④ 13가지 생각도구에 따른 움직임을 창작, ⑤ 자기표현 및 타인과의 공감으로 요약된다. 프로그램의 수업모형은 ① 웜업(Warm-up), ② 생각 열기, ③ 몸으로 표현하기, ④ 춤•생각나누기, ⑤ 쿨다운(Cool-Down)의 총 다섯 단계로 구성되었다. 또한, 13가지 생각도구에 따라 ① 놀이, ② 관찰, ③ 몸으로 생각하기, ④ 형상화, ⑤ 감정이입, ⑥ 유추, ⑦ 패턴인식, ⑧ 패턴형성, ⑨ 차원적 사고, ⑩ 추상화, ⑪변형, ⑫ 모형 만들기, ⑬ 통합의 순으로 총 13차시의 프로그램의 내용 체계를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은 커뮤니티 댄스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확장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둔다.

키워드: 사회초년생, 커뮤니티 댄스, 즉흥무용, 13가지 생각도구, 생각의 탄생

재능의 위계화, 혹은 경쟁의 서사화
–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Défilé du Ballet〉와 서바이벌 오디션 〈픽미 업〉의 안무의 구조에 드러나는 의미 분석 –

제 환 정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강의전담교수

이 연구는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Défilé du Ballet(1947)〉와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듀스 101의 〈픽미업(2016)〉의 안무구조의 분석을 통해, 서로 상이한 맥락의 두 작업이 어떻게 재능을 위계화하고 경쟁서사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Défilé du Ballet〉는 1947년 리차드 바그너의 〈탄호이저〉에서 처음 등장된 작품으로, 발레단의 특별한 행사에서 선보여온 작품이다. 관습에 따라 250여명의 무용수들이 20여 분간 특별한 동작 없이 대규모의 퍼레이드를 선보이며, 엄격한 발레단의 계급 구조에 맞추어 순서와 인원수, 인사방식이 결정된다. 한편, 〈픽미 업〉은 2016년 한국의 대표적인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101"의 작품으로 101명의 출연자들이 자신이 부여받은 등급(A~F)에 따라 위치, 등장 순서, 안무수행에서의 역할 배분이 나뉜다.

이 두 작품은 그 상이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도 불구하고, 고난도의 경쟁과 경쟁의 결과로 드러나는 구조적 차별성을 통해 개인의 역할을 부여하는 한편, 집단의 정체성을 구축한다. 또한 매우 단순화된 안무 구성과 참여자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유니폼 등을 통해 개인사이의 경쟁을 자연화하면서 이를 서사화하고 있다.

키워드: Défilé du Ballet, 파리 오페라 발레,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픽미업, 재능의 위계화

공간을 활용한 Site-Specific 무용의 활성화 방안 연구

홍 정 아
충남대학교 강사

본 연구는 Site-Specific 무용의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Site-Specific 예술은 공간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특정 공간을 활용하여 예술작품이 생성되는 것을 말한다. 극장이 아닌 외부장소로 작품의 배경을 변화시키고, 특정 공간에 Site-Specific이 갖는 특성의 원리를 이용하여 공연을 위한 요소들을 투입하고 기존의 공간들을 확장하는 형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공간을 활용한 Site-Specific무용은 다양한 공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며, 관객들은 의도치 않게 우연적으로 무용공연을 관람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로 인해 대중들과 소통관계도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공연자와 관객과의 소통 관계는 공연의 가치를 만들어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극장을 벗어난 Site-Specific 무용은 다양한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 하에 Site-Specific 공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Site-Specific 무용은 공연예술의 대중화에 관련된 또 다른 대안점이 될 것이다. 현 무용계는 순수예술의 형식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닌 여러 방향의 실험적 무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며 본 연구가 Site-Specific 무용의 활성화의 따른 기초자료에 조금이나마 기여되고자 한다.

키워드: Site-Specific, 장소 특정적, 공간 특수성, 무용의 활성화 방안, 공간 활용